

선교지의 목양사역: 더 먼길을 택함

- 기성 파송국가의 관점 -

켈리 오도넬

산 위로 오르라, 여행자여!

그렇지 않으면 평원에 주저앉게 되리라.

- 아일랜드의 격언 (MacIntyre, 1994, p.18)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마 10:16)고 말씀하신 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초대 교회와 그 뒤를 이은 세대의 핍박은 그분의 경고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깝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목양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의 한 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리들”을 직면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로, 선교사들을 위한 목양 사역의 핵심은 돌봄을 베푸는 전문가들의 특별한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그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오히려 희생적인 생활 양식 가운데서 “매일 피차 권면”(히 3:13) 하는 친구들 사이의 상호지원에 달려 있다. 그러한 목양은 우리가 선교지 생활의 먼 길을 계속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목양이란 선교단체, 교회, 기타 단체들이 선교사 인

력의 양육과 발전을 위하여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선교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현지에 있는 선교사, 후원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선교사 선발에서부터 은퇴하기까지 선교사 생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목양이란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 즉 파송 교회와 선교단체, 동료 사역자, 그리고 목양을 베푸는 전문가들 모두의 책임이다. 목양의 또 다른 주요 자원은 선교지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맺은 선교사들의 상호 지원적인 관계들이다. 그 자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은 경건한 성품과 내적인 힘, 그리고 사람들을 그들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양이란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적 자원들의 개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목양의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현지 훈련, 팀 형성, 위기관리, 법적 지원(비자, 자녀 교육, 의료보험, 여행 안내 등), 수련회, 현지인 동료와 이웃들과의 우정, 지속적인 기술 개발(언어 습득과 사역 분야의 훈련), 그리고 격려와 가르침과

상담을 위한 목회자의 방문 같은 것이 있다(O'Donnell의 책 중에서).

이 장에서는 현지에서의 돌봄에 특별한 강조를 둔 목양의 네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자.

- ◆ **목양의 패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목양의 경향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 ◆ **목양의 바로미터.** 목양에 있어 우리들의 강점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하나의 지침.
- ◆ **현지에서의 문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수용되는 사역을 하게 만드는 도전.
- ◆ **실제적인 전략.** 목양의 몇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

본인은 목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목양의 패턴

목양은 선교에 있어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에서 보면 기성 파송국가는 그들 자원의 12%를 목양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신생 파송국가는 놀라게도 20%를 사용하고 있다. 목양은 현저하게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책임인 동시에 선교 전략의 중심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양이라는 추가 너무 멀리 움직여 갔으며, 적어도 돌봄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이 목양의 옹호자인 돈 라슨(Don Larson)과 브렌트 린퀴스트(Brent Lindquist)는 최근에 나에게 단순히 외국인 동료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외국인 동료들끼리의 지나친 돌봄은 실제로 선교지 문화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운동

목양은 세속 직장 사회 속의 유사한 운동(예: 인간 자원 개발원, 고용인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반영하기도 하는, 선교계 내에서의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요 전제는 직원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더 큰 만족과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목양은 이제 선교계 내의 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옳은 일이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와 연구 근거, 실천가들 그리고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건강 관리

점점 더 많은 숫자의 기성 파송국가들의 목양 책임자들이 현지방식을 따라 건강을 돌보려고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건강 관리를 비서구 지역과 선교 현장에서 초문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다중 문화 팀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커가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제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황화된 기독교 가정과 아랍어로 된 결혼에 관한 자료들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목양은 또한 신생 파송국가의 선교단체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좀 더 수준을 높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격려가 되는 한 예로서 인도 선교 협의회는 인도 선교사들을 위한 건강 관리팀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관리 시설 마련을 제안한 것이다. 다른 예로서는 인도 복음주의선교회의 전도훈련 연구원과 같은 훈련원에서 선교사 후보들이 받는 목양을 들 수 있다.

문서화된 자료

목양에 관계된 분야에서 박사 논문, 기사문, 리서치

프로젝트들 그리고 책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전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는 마조리 휘일(Major Foyle)의 *Overcoming Missionary Stress* (1987)이다. 1974-1988년 사이에 쓰여진 50개의 중요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는 *Helping Missionaries Grow* (O'Donnell & O'Donnell, 1988)가 있다. 고든과 로즈메리 존스(Gordon & Rosemary Jones)의 근간 *Teamwork* (1955)은 훌륭한 책이다. 테드 랜데스터(Ted Landester)가 해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해 쓴 책 *Good Health, Good Travel* (1955)도 그에 못지 않다. 최근의 25개 글들을 모아놓은 *Missionary Care* (O'Donnell, 1992)는 또 다른 좋은 자료이다. 끝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의 1995년 10월호는 프론티어 선교회의 상황(다국적 팀들, 위기 관리, 간단한 현지 상담, 필요 파악 등)에서 목양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확실히 신생 파송국가에는 문서화된 자료들이 부족하다.

회의

목양에 관련된 모든 회의의 원조는 선교사 자녀에 관한 국제 회의(1980년대 퀴토, 마닐라, 나이로비에서 개최됨)이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인사위원회 관계자들의 모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정신 건강과 선교(Mental Health and Missions Conference, 지금은 17회를 맞이했다)라는 대회와, 선교사를 위한 목양 책임자 회의(Pastors to Missionaries Conference)가 해마다 개최된다. 다양한 선교협의회나 단체에서도 또한 그들의 대회 중에 선교사를 위한 목양 워크샵을 가지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최근 영국에서 있었던 WEF 목양 워크샵은 가장 중요하고 몇 안되는 국제적이고, 단체를 초월한 모임으로 여겨질 것이다.

목양 전문 기관

목양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이 책의 제 25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주요 그룹과 기관, 개인들의

목록이 실려있다. 그러한 가이드가 이제 모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전례 없이 많은 숫자의 서비스 단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예를 들어, 두개의 초단체적 목양 전문 단체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자극하고 보충하기 위해 최근에 형성되었다. 유럽과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위한 관리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슷한 단체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 기독교 상담자 협회는 국가별 기독교 상담자 협회를 만들어, 그 결과로 선교사들을 위하여 추천해 줄만한 얼마간의 중요한 자원들을 얻도록 격려하고 있다.

워크샵과 코스

목양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많은 워크샵과 코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와 콜럼비아 국제대학, 로즈미드 심리학 학교(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와 독일에 있는 IGNIS 심리학 학교는 수련 중인 심리학자와 상담자들을 위하여 목양에 관한 코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CCC 출신의 놀 부부(Ron & Babara Noll)가 아시아인들이 지역 교회와 선교적 상황 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싱가폴은 중독에 관한 것과 지원 그룹 운영의 분야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집중적인 워크샵의 장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경향의 귀결은 무엇인가? 더 돌아가는 길, 즉 그것은 지속적인 목양을 제공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생애를 감동시키며, 오랜 어려움을 뛰어넘어 인내하는 더 건강한 선교사들을 의미한다.

목양의 변수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기관들은 그 선교사들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요즈음 거의 자명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사역자들을 가장 잘 유지시키며 후원할 것인가? 네가지 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축을 구성해 보기로 하자. 사역자의 형태, 단계별 형태, 서비스 형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의 형태라는 축은 우리의 목양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평가해 보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사역자의 형태

우리는 종종 목양 프로그램을 개인과 부부, 가족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만든다. 그러나 목양이 단편적인 것이 될 되게 하려면 좀 더 집단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다른 형태의 사역자들, 다시 말해 각 팀들과 각 부서들, 각 지역들, 단체들, 그리고 단체끼리의 동반자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우리 그룹과 연합된 구조들도 목양이 필요하다!

단계별 형태

두번째 변수는 사역자들의 다양한 인생 발달 단계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변수는 선교사 생활 전체 싸이클의 여러 단계들로 구성된다. 즉, 선발, 허입, 후보 단계, 첫 임기, 안식년, 은퇴를 포함한다(Dodds, Dodds, & Kuitems, 1993; Gardner, 1987을 보라). 선교사 가족들에게 있어서 인생 발달 단계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말한다. 즉, 신혼 부부, 어린 자녀들을 가진 가족,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가족, 자녀들을 떠나 보낸 부모, 그리고 노년의 가족을 말한다(O'Donnell, 1987을 보라). 팀들도 역시 전체 싸이클의 단계인 시작, 적응, 사역, 마감의 단계가 있다(Love, 1966; O'Donnell, 1992b를 보라). 단계로서의 삶은 그리너(Griener)의 단계 발달 모델과 같이 의미 깊은 변천의 단계에 따라 구분지워질 수 있다. 그 모델은 창조성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지시, 위임,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작 단계로 되어 있다. 동반자 관계의 전체 싸이클에 대하여는 인터덱(Interdev, 1995)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각들이 형성되어 왔다. 즉, 그것은 1~3년 사이의 탐색 단계, 형성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필요만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원에서 이러한 필요들이 발생하는지 또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은 그 실체가 언제 가장 위기에 처하는가에 대한 표시등이 된다. 고전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첫 임기의 선교사는 문화 충격으로 갈등하며, 사춘기 자녀를 가진 선교사 가족은 부모의 본국 문화권으로 귀국하게 되고, 팀들이 서로 “차별화” 단계 중에 대인관계 갈등에 휘말려들며, 어린 선교 기관이 창설자 주도의 시기에서 보다 참여자 중심의 지도력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 처하는 것들이다.

서비스의 형태

현지에서의 좋은 목양이란 보통 현지 오리엔테이션, 지속적인 훈련, 필요가 생길 때 하는 목회 상담 또는 위기 상담, 본국 사무실/교회로부터의 법적 후원, 신뢰 받는 지도자가 수시로 방문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격려의 시간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과 다른 서비스들은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O'Donnell & O'Donnell, 1992).

예방 서비스는 문제의 발생을 줄인다. 그 예로서는 그들의 일이나 관계들을 방해하게 될 심각한 개인적 갈등이 없는 선교사를 선발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며 입증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팀 생활의 자질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된다. 목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없애 버리는 것이다.

개발 서비스는 선교사들의 타문화권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가지 주요 분야는 팀 구성원들에게 갈등 처리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개발의 또 다른 형태는 고참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훈련하는 것을 코치하거나 선교사들이 통신 과정을 택하여 공부

하게 하는 것들이다.

후원 서비스는 삶의 고락간에 선교사들을 격려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함께 기도하기, 상담, 가족 수련회를 통한 가족 관계 발전, 목회자의 방문 그리고 새로 임지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 거처 마련을 도와주는 것들은 좋은 예이다.

회복 서비스는 심각한 문제들의 영향을 교정해 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오랜 결혼 불화 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나, 현지 사역자가 의료적인 검진과 상담의 필요가 있는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 때문에 되돌아 가는 것들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의 형태

“선교사들의 필요”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 탈락 연구는 26가지의 “떠나는 이유들”을 열거함으로써 분석을 했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10가지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들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현지 인력에 있어 공통적인 방법이다(O'Donnell & O'Donnell, 1995에서 인용).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직업적, 교단적, 문화적 배경이 소속 단체의 본질적인 유형과 잘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단체로 말미암는 스트레스 요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문화의 적응 혹은 동료들과의 잠재적인 갈등과 같은 보다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한 것을 주목해 보라.

- ◆ **문화적.**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언어 습득, 문화 충격, 재입국.
- ◆ **위기.** 잠재적으로 충격이 될 수 있거나, 종종 예기치 않은 사건들: 자연 재해, 전쟁, 사고, 정치적인 소요.
- ◆ **역사적.** 개인적인 과거의 갈등 중 해소되지 않은 영역: 가족의 근원에 관한 문제, 개인적인 약점들.

- ◆ **인간적.** 가족간, 동료간, 현지인과의 관계: 자녀 양육, 부부 갈등, 팀 구성원들과의 갈등, 사회적인 반대.
- ◆ **직업적.** 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과 압력들: 작업량, 여행 계획, 문제의 노출, 작업 만족, 훈련의 필요, 복잡한 관공서 “서류들”.
- ◆ **조직적.** 각 개인의 배경과 단체의 특성 사이의 부조화: 회사 정책의 차이, 작업 방식, 기대감.
- ◆ **신체적.** 건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양공급, 기후, 질병, 나이, 주위 환경, 성적인 위험.
- ◆ **심리적.**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성과 자존감: 정체성, 외로움, 좌절감, 우울증, 원치 않는 습관, 발달 과정상의 문제, 생의 단계에 따른 문제.
- ◆ **후원.** 한 선교사의 가정을 유지시켜 주는 자원들: 재정, 주택, 목회적 기술적 도움, 후원자 관계 유지.
- ◆ **영적.** 주님과과의 관계: 경건 생활, 간교한 유희, 다른 신자들과의 시간, 다른 사람들의 신학과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대한 적응, 영적 전투.

이제 흥미있는 일을 좀 해 보자. 사역자의 형태, 발달단계의 형태, 서비스 형태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의 형태, 이 네가지 변수 모두를 통합해서 우리들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필요와 자원들의 더 분명한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표 22-1을 보라).

어쩌면 이러한 격자(16가지)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네가지 형태의 사역자들이 각각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적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첫번째 수준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신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토의해 보라. 그리고 나서 부부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해 보라. 당신은 삶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패턴이나 특별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 다음으로는 네가지 형태의 사역자들에게 각각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가 삶의 어떤 발달단계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가?

이 모든 것들이 어찌면 약간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한두가지 항목에 대해 연습을 해 보면 재빨리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 격자에 따라 이러한 필요와 자원들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 주는 몇가지 예들이 있다.

1. 우리는 교육 전문가가 우리의 주된 선교지인 중동 지역에 가는 선교사 자녀들의 특별한 필요들(발달 과정상의 지연, 학문적인 혹은 행동상의 문제들, 가족 간의 긴장)에 대하여 점검을 해 주는 출국 전 점검 서비스를 받았다.
2.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독신 선교사들 중 절반이 특별히 첫 임기 동안 고립된 느낌과 성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동료들의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하고 성적인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3. 우리 선교 센터에서 전쟁으로 찢긴 지역에서 일하도록 보낸 세계의 구제사역 팀은 팀 형성 이론에 따른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룹원의 삶의 다양한 발

달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4. 북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개척팀은 팀 생활의 “차별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치유를 돕는 외부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일어난 한가지 사례가 아니다. 우리 교회 개척팀 중 다른 18개의 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해 왔다.
5. 우리 단체의 본부는 평상적인 업무 평가서 외에도 “상호 피드백을 위한 서식(書式)”을 만들었다.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부서 내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상호 존경과 책임의 본질적 요소들을 키워나갈 뿐 아니라 단체가 점점 커지는 데 따라 더욱 더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원하는 그들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이다.
6. 한 기관 내의 6개 유럽선교 센터가 조직상의 주요 과도기에 다같이 주님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수련회로 모였다.
7. 어떤 지역에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재

목양의 요구와 자원 (선교지의 예)					
사역진의 형태	서비스의 형태				단계별 형태
	예 방	개 발	후 원	회 복	
사람: 독신, 부부, 자녀, 가족	ㄱ 자녀들의 특별한 필요		ㄴ 독신 여성		선교단체, 가족, 개인적인 생활 사이클
소 그룹: 팀, 부서들		ㄷ 구제팀		ㄹ 교회개척팀	팀/소그룹 단계
대 그룹: 센터, 지역	ㅁ 기관, 삶의 질		ㅂ 선교단체를 위한 수련회		기관의 단계
동반자 관계: 나라, 민족, 지역그룹, 전세계		ㅅ 동반자 관계 훈련		ㅇ 동반자 관계 갈등	동역 단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의 형태				
	문화적, 위기, 역사적, 인간적, 직업적, 조직적, 신체적, 심리적, 후원, 영적				

표 22-1

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위기 관리(철수, 피납 상황) 훈련을 지역 동반자 관계 모임에서 실시하였다.

8. 동반자 관계 지도자들이 미전도 지역에 있는 한 큰 교단에서 온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교인들은 부적절한 “서구식” 전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다.

현지에서의 문제

탈락 연구에서 행정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탈락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문제들 몇가지가 드러난다. 신생 파송국기들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탈락 요인들의 순서는 본국으로부터의 후원 부족, 소명 부족, 헌신 부족, 파송기관과의 불일치,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로 나타난다. 기성 파송국기들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문제, 직업 전환, 건강 문제, 동료들과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순이다.

문제의 형태

이들 문제의 일부는 그 성질상 관계적인 것(예: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파송기관과의 불일치)이며,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세대간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4장에 나오는 캐쓰 도노반과 루쓰 마이어스의 분석을 보라). 그 문제들은 또한 한 사람의 배경과 기대가 기관의 것과 잘 맞지 않거나 갈등 처리의 기술이 부족하여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송기관이 다음과 같은 상호간의 피드백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도자들이 용서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도록 격려하고, 지도력의 형태가(세대간에) 차이가 난다는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자기를 노출하고, 의사 결정하며 사역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갈등 처리 기술을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것 등이다(Augsburger, 1992; Elmer, 1993을 보라).

바람직하지 못한 탈락 요인 중 다른 것들은 그 성질상 보다 개인적인 것(예: 헌신도, 적절한 소명, 건강 문제, 개인 문제)이며, 어쩌면 가족적인 배경이나 지역 교회 내에서 부적절하게 형성되었다가 선교사 생활의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제3장에서 루디 히론의 논점을 보라).

문제의 세번째 형태는, 특히 기성 파송국기 출신들은 자녀들의 필요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자녀들의 학교 선택권과 그들의 전반적인 적응(기성 파송국기의 문서에서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에 관한 것이다.

팀 문제

팀들은 특히 관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락 연구(제6장을 보라)는, 다른 선교사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탈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렉 리빙스톤(Greg Livingstone, 1993, 115 쪽)의 책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무슬림 도시에서의 교회 개척)에 나와 있는 팀생활의 갈등들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경청하라.

팀의 교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죄된 성품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때로는 추하고 불합리하고 비판적일 때가 있는 것이 충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에 의해 길러졌기 때문에 우리 중 아무도 정서적인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곳에 있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선교사에게는 맹점이 있다. 즉 우리는 죄와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혹은 신경성 편집증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5:23-24와 18:15-17에 따라 화해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교사들이 종종 이러한 가르침들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팀들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팀 형성에 관한 시간을 계획하면 좋을 것이다. 한가지 좋은 방법은 신약 성서에서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 여러 다른 구절(예: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지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을 살펴보는 것이다. 팀 형성에 관한 다른 아이디어는 고든과 로즈메리 존스(1995)의 훌륭한 책인 *Teamwork* 에서와 *Tools for Team Viability*(팀 존속을 위한 도구들)이란 글(O'Donnell, 1992b)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용납도와 이용 가능성

현지의 목양의 또 다른 성패는 목양 서비스의 용납도와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용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나는 먼저 문화적으로 적절한 관련 자료(예: 상담, 책), 특히 신생 파송국가들로부터 나간 점점 더 많아지는 선교사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용가능하다는 말은 힘들고 고립된 최전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점 더 늘어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개발할 필요를 의미하고 있다.

서비스의 용납도

목양이란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 팀에 속한 아시아인 선교사가 (자신의 약점이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개인적인 갈등에 대해 자기 개방을 하겠는가? 혹은 이 팀의 남미인들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룹 모임에서 “정직한 소견”(권위자에게 대들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알려 주겠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반응들은 가장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재자나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접근이나 혹은 그 사람을 개인적

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보다 사적인 접근 방식이 종종 문화적으로는 더욱 적절한 것이 되기도 한다 (Cho & Greenlee, 1995; Mackin, 1992을 보라).

서비스의 용납도에 속하는 다른 이슈들은 배리 오스틴(Barry Austin, 1992, p. 62)의 “목회적 관리를 통한 선교 후원”이란 글에 다루어지고 있다.

선교사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돌봄은 때로 어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쩌면 당신이 어떤 도움이나 충고를 얻기 위해 접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당신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은 어떤 사람과는 당신의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기를 꺼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역으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다국적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제2외국어로 깊이 있게 의사전달을 하고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이해 받았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혹은 목양을 베풀어 줄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함께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나는 한 국제 회의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총체적인 목양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목양에 대한 나의 열정과 총체적인 목록에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온 형제들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마치 내가 다른 별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었다. 나는 서구의 자인들이 풍성한 나라에 대해 말한 것이었으니까!

한 남미 부부가 중앙 아시아에서 일하다가 강도를 만나 육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겼다고 가정해 보자. 비록 그들의 친구들이 깊이 동정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며,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전형적인 악

몽에 시달리게 된다. 6주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사건의 기습적인 영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적인 안전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머물러 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것처럼 고립된 지역에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러한 도움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제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충격 전문 치료사보다 의사나 목사를 더 선호할 것인가? 그들과 그들의 파송 교회, 또는 선교단체는 이러한 위기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재정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 강도 만난 경험을 “떨쳐 버리고” 그들의 일을 계속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재정적, 지리적, 혹은 문화적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치유란 생각도 할 수 없다. 심각한 가정 불화, 육체적 정신적 탈진, 음화를 보거나 과식하는 것 등의 숨겨진 중독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솔직히 그런 문제에 걸려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란 거의 없다.

비록 내가 목양의 발전에 대해 강권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많은 고립된 상황들(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신생 파송국가들)에 있어서는 목회적인 서비스가 아직도 하나의 사치로 보인다. 은퇴 제도, 연금 계획, 각종 요법? 생각할 수도 없는 사치이며 어쩌면 믿음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다. 검소한 선교의 세계에 있어서, 신생 파송국가들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목양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가 보다는 선교사가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내적인 자질들을 개발하는 것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다가 지도자의 방문을 통한 목양의 축복과 선교사 동료들과의 좋은 교제와 기도의 시간들을 더하면, 이제 당신은 많은 목양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쩌면 그러한 프로그램도 결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그것은 종종 사람들이 더 먼 길을 가도록 지탱해 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실제적인 전략

그러면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는 다른 형태의 자원들과 전략들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상담을 통한 목양

동료간의 상담과 전문적 상담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은 꽤 보편적인 목양의 화두(話頭)이다. 린퀴스트(1995), 그리고 쉘니와 스미스(Cerny and Smith, 1995)는 선교지에서 간략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의 실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경우 모두 보다 비형식적이고 간헐적인 접근이 현지 선교사들에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른 저자들은 일반적인 상담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이트(White, 1989)는 스트레스에 대한 목회적 상담을 강조하고, 포웰(Powell, 1992)은 선교사의 공통적인 갈등들(죄의식, 우울증, 슬픔, 분노,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덴네트(Dennet, 1990)는 네 종류의 사람들(후보자, 첫 임기 사역자, 지도자,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의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첫 임기 상담의 중요성은 문화 충격의 실재와 개인적인 적응 문제가 새로 도착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될 때 종종 두드러진다(예를 들어, Jones, 1993). 윌리엄스(Williams, 1992)는 선교사 동료들 사이의 상담과 상호 돌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델을 그리고 있다.

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연구 중의 하나는 로버트 루가(Robert Lugar, 1955)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서는 5년간(1988-1992)의 상담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선교단체의 탈락과의 관계

를 결정짓기 위해 55개의 선교단체를 조사했다. 상담이라고 할 때 넓게는 사건 보고와 필요를 측정하는 일과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 조사한 선교단체 중 대략 절반은 그들의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상담가를 만나도록 요구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루가는 상담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한 선교단체의 평균 탈락율은 다른 절반의 선교단체보다 적다(5년 사이에 8%)는 것을 발견했다. 이 수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선교단체는 물론, 상담을 제공은 하되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은 선교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저널 기록

현지 사역자들에게, 특히 상담가를 만나는 것이 제한된 곳에 사는 사역자들에게는 저널을 기록하는 것이 유용한 상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저널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반추해 보고 당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특별한 노트에다 기록하되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지런히 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훈련은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애기하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의미있는 방법이 된다. 저널 기록은 약간의 창의적인 변화들을 또한 수반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저널을 각각 기록한 다음 그들의 기록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신은 최근의 생활 경험을 나타내 주는 그림이나 당신의 내면 혹은 외면 세계의 특별한 장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의 “비판적인” 자아와 “용납하는” 자아 사이의 대화를 적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어린 시절로부터의 “상처들”을 다루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저널 기록을 위한 제안을 더 원하면 웨퍼슨 부부(Vance and Beth Shepperson, 1992)가 쓴 *Tracks in the Sand*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기 바란다.

상담 서적에 나오는 통일된 결론은 분명하다. 상담은 그것이 동료나 상담가에 의해서든지, 혹은 저널 기

록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격려와 성숙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이란 단지 아픈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역시 필요로 한다!

목양팀

또 다른 현지 돌봄의 전략은 단기적인 목양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팀들은 선교지나 선교 집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사와 상담가, 경험있는 선교사들, 의사, 심리학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팀들은 그들 스스로 찾아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초대된 경우, 그리고 그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일회적인 행사로서가 아니고 장기간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러한 팀들을 형성하여 활용할 때가 무르익었다! 다음은 우리 목양팀이 준비한 내용이다. 다른 팀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침으로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우리 팀의 참여는 비형식적인 인터뷰와 두명의 추천에 근거한 초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문 기술 외에도 참여자는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하고, 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혔으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새로운 상황과 때로는 압력이 많은 상황 하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작은 팀과 일할 수 있어야 하며, 타문화의 차이점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들 몇명도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책임

모든 목양팀에는 팀 인도자가 배정되어 있다. 그는 주된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대개 그 팀이 가는 지역이나 그룹에 대한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에 기본적인 문화적 해설과 금기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팀은 보통 서로간의 협의와 교육, 기도를 위하여 매일 모인다. 팀 결과 보고는 함께 시간을 보낸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체류

팀원들은 종종 자기가 교통비를 낸다. 숙소는 보통 서비스를 받는 그룹에서 제공한다. 팀원들은 “민감한” 어떤 자료들은 가지고 가지 않도록 주의를 받으며, 종종 부탁 받은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한다. 그들은 보통 그 나라에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머문다. 팀원들은 기술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거나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금은 주고받기도 한다. 만약에 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을 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출국과 귀국에 대한 준비

우리는 팀원들에게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 줄 친구들을 적어도 다섯명을 찾도록 요청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나 교회에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팀원들은 그들이 갈 지역은 물론 그들이 함께 일하게 될 선교단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현지어로 몇가지 중요한 말들을 배우고, 단출하게 여행을 하며, 몇가지 “창의적인 위로거리”를 갖고 가도록 격려하며,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 예방 접종의 필요와 부가적인 건강 보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입국, 체류, 출국시에는 단순히 관광객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목양팀은 전후 한 주간이 특히 바쁘고 힘들 수 있으므로 팀원들은 이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시간 배정을 잘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지출한 내역을 적도록 하며, 여행으로 인한 시간차가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하며, 사역 후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여행 후에는 부가적인 결과 보고를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막역한 친구를 찾으라고 권한다. 채적응은 심지어 짝막한 해외 봉사 후라 할지라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윤리적인 몇가지 사항

사역자들과 나눈 모든 자료들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아이들, 혹은 어른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든지 간에 그것이 피상 담자나 그 사람의 선교단체, 혹은 그 사람이 속한 팀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직업적인 비밀 보장의 관계보다는 더 큰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관의 지도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예를 들어, 자금 유용, 도덕적 실수, 심한 우울증, 지도력의 남용, 심각한 결혼 문제 등). 그것은 가능하면 목양 팀원이 있는 데서 피상담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비밀 보장의 정책은 선교단체와 피상담자 선교사에게 미리 분명히 해야 한다.

자국 내에서의 유능함과 직업 상황은 타문화 상황에서 반드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팀원들은 그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들이 봉사를 베푸는 이상으로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팀원들은 보통 비형식적인 방식(식사 때나 함께 산보하는 동안)과 좀 더 공식적인 방식(커다란 집회나 상담실에서), 양쪽 방식 모두를 사용하여 봉사해 주도록 요청받는다. 역할상의 융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팀원들에게 오래된 문제들(“상처 입은” 배경들, 심각한 성격 문제들)을 단기간 내에 끄집어내거나 다루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간단한 치료법이 그렇듯이, 팀원들은 한두 가지의 문제 영역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용어로 정의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지해 주며, 협조 분위기를 만들고, 실용적으로 대하며,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선교사들은 격려와 경청(특별히 객관적인 경청), 영적인 도움과 요청한 것에 대한 특정한 충고에 대해 진정으로 고마워한다.

목양의 장래 방향성: PACTS

목양에 있어 최근의 변화가 가장 격려가 되었다. 선

교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타문화권에서의 유능성과 경건한 성품, 두가지 다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를 돌보는 것과 그들의 근무 연한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가미가재식 기독교”는 충분했다! 그러나 목양이 제 길을 찾아 세계 선교와 선교사의 장기적인 봉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방향성은 목양을 포함하는 기독교 자원들이 개발되어 선교지에 배포되고, 모든 사람과 세대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세계 선교 인력의 단지 10%만이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25억의 사람들 가운데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교 인력의 2% 미만이 지구상의 10억 무슬림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슬픈 사실이다. 선교계와 목양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는 따라서 전략적으로 가장 미복음화된 곳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양에 우선권을 주는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 그러한 방향성 다섯가지가 있다. PACTS(계약, 약속이란 뜻)란 단어로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목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줄 것이다.

- ◆ Pioneering (개척)
- ◆ Affiliations (협력)
- ◆ Continuing growth/care (지속적인 성숙/돌봄)
- ◆ Training (훈련)
- ◆ Special Projects (특별 프로젝트)

PACTS는 전략적인 목양 프로젝트들을 성취하는 것에 관해서뿐 아니라 목양을 하는 동료들 사이에 서로 지지해 주고 신뢰하는 우정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관계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그것은

서로 협력하는 과업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들을 맺는 일에도 관계한다.

개척

서구식 목양의 몇가지 거품을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목양을 위한 자원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가 보자.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하라. 혁신하라! 예를 들어 중앙 아시아나 인도, 아프리카에 고정적인 목양팀들을 만들도록 도우라. 물론 그것은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왜 못할 것인가? 혹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목양 사역자들과 10/40 창 내에서 동역하는 많은 기관들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은 어떨까(Butler, 1994)?

협력

목양 사역자들을 공동 프로젝트와 상호 지원 및 공동 자문을 위해 함께 모으라. 목적을 갖고 협력을 도모하라! 돌봄을 베푸는 자들의 지역별, 기관별 네트워크를 만들라. 서로 다른 기관이나 사역 그룹에 속한 회원들로서 단기 팀들을 만들라. 그들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선교지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격려하라. 그 외에도 선교 인력 또는 목양 사역자들이 동등한 서비스를 더욱 진전시킬 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여하라. 그러한 협의회는 작고 비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보다 크고 공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아직도 조정작업이 크게 필요한 지역을 위해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목양에 관한 과업을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선교 분과나 AD 2000 운동과 같은 더 큰 선교 그룹들의 일부로서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라.

지속적인 성숙/돌봄

목양은 통합적인 분야로서 기술의 유지와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요구한다. 우선권을 정해 놓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에 발맞춰 가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트워크와 현재 동향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서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 심리학 연맹과 같은 비종교적 기구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Pawlik & Ydewalle, 1996 참조). 목양 또한 과로하여 지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보고를 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일의 정도를 조절하고,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며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훈련

선교사들과 목양 사역자들을 다같이 수련회의 워크숍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라. 주요 대회에서 목양을 하나의 분야로 포함시키라. 목양 코스나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주요 대학원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되 국내에서만 말고, 아프리카와 인도에 있는 성경대학과 같은 곳에서도 남미의 선교훈련원 또는 독일에 있는 IGNIS와 같은 유럽 기독교 심리학 학회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기독교 심리학 학회에서 가르치라. 다음과 같은 훈련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룹 상담, 결혼 상담, 가족 생활, 팀 구성, 영적 전투, 그리고 위기 관리. 더 나아가 친구 파송국가의 선교 인력들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적절한 목양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라. YWAM과 OM 같은 그룹에 참여하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선교사들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상담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Azusa Pacific 대학에 있는 Operation Impact 프로그램은 지도자 개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선교지를 배경으로 하는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 프로젝트

전략적인 필요들과 공동 관심사에 근거하여 몇몇 장단기 프로젝트들을 함께 만들라. 몇가지 예를 들면, 목양 기구들의 국제적인 자문 베이스를 유지하고 최신

화하는 것, 협력 리서치/소논문 작성하기, 목양에 관한 이메일 포럼/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우리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는 영역에서도 함께 몇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현저한 예로서는 전쟁과 재난에 의해 참변을 겪은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건의 결과 보고, 상담 또는 화해 세미나와 같은 후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며, 중복 투자를 하지 말며, 미전도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좇으며, 전략적이고 실행가능하며, 현지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라는 것이다.

참고 서적

Augsburger, D. (1992).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Pathways and patter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Austin, B. (1992). Supporting missions through pastoral care.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60-68).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Butler, P. (1994). Kingdom partnerships in the '90s: Is there a new way forward? In W. D. Taylor (Ed.), *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 (pp. 9-30).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Cerny, L., & Smith, D. (1995). Short-term counseling on the frontiers: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2, 189-194.

Cho, Y., 86 Greenlee, D. (1995). Avoiding pitfalls on multinational team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2, 179-183.

Dennett, J. (1990). Let my people grow: Counseling as a way to maturity in Christ.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6, 146-152.

Dodds, L., Dodds, L., & Kuitems, L. (1993). *A developmental model of disease progression: Level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interacting dimensions of health and life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3 Mental Health and Missions Conference, Angola, IN. (Available from Heartstreams Resources, 101 Herman

- Lee Circle, Liverpool, PA 17045, USA)
- Elmer, D. (1993). *Cross-cultural conflict: Building relationships for effective minist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Foyle, M. (1987). *Overcoming missionary stress*. Wheaton, IL: EMIS.
- Gardner, L. (1987). A practical approach to transitions in missionary liv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 342-349.
- Griener, L. (1972, July/August).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Harvard Business Review*.
- Interdev (1995). *Interdev annual report*. (Available from P.O. Box 47, Ashford, England TW15 2LX)
- Jones, G., & Jones, R. (1995). *Teamwork*. London, UK: Scripture Union.
- Jones, M. (1993) First year counseling: A key ingredient to succes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9, 294-298.
- Lankester, T. (1995). *Good health, good travel*. London, UK: Hodder & Stoughton.
- Lindquist, B. (1995). How to make the most of short-term missionary counseling.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1, 312-316.
- Livingstone, G. (1993).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A team approa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Love, R. (1996). Four stages of team development.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2, 312-316.
- Lugar, R. (1995). *The efficacy of agency sponsored professional counseling as a deterrent to the attrition of career missionary personn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merican Center for Religion/Society Studies, Oxford Graduate School, Oxford, England.
- MacIntyre, T. (1995). A glance will tell you and a dream confirm. In C. Reilly & R. Reilly (Eds.), *A gift of Irish wisdom* (p. 18). New York, NY: Hearst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Mackin, S. (1992). Multinational teams.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155-162).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 (1987). Developmental tasks in the life cycle of mission famil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 281-290.
- O'Donnell, K. (Ed.). (1992a).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 (1992b). Tools for team viability.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184-201).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 (1997). Member care in missions: Global perspectiv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143-154.
- O'Donnell, K., & O'Donnell, M. (Eds.). (1988).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 & O'Donnell, M. (1992). Understanding and managing stress.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110-122).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 & O'Donnell, M. (1995). Foxes, giants, and wolve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2, 185-188.
- Pawlik, K., & Ydewalle, G. (1996). Psychology and the global commons: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1, 488-495.
- Powell, J. (1992). Short term missionary counseling.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121-135).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Shepperson, V., & Shepperson, B. (1992). *Tracks in the sand: An interactive workbook*.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 White, G. (1989). Pastoral counseling: The key to a healthy missions forc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5, 304-309.
- Williams, K. (1992). A model for mutual care in missions.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46-59).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은 YWAM과 영국에 본부를 둔 초단체적인 목양팀인 목양 협회(Member Care Associates)에 속하여 일하는 심리학자이다. 아내인 미셸(Michele)과 함께 윌리엄 케리 출판사(William Care Library)에서 출간한 *Helping*

Missionaries Grow (1988)와 *Missionary Care* (1992)를 편집했다. 오도넬 부부는 팀 구성, 상담, 가족 생활, 목양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의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그는 프론티어 선교회의 목양 분야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선교사 자녀와 탈락

데이빗 폴록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고전 9:5). 확실히, 첫 선교사 세대로부터 결혼과 가정의 문제는 논쟁거리였으며, 아마도 혼돈거리였을 것이다. 고린도 전서 7장과 9장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분명히 내리지 않고 있어 우리는 종종 당황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사역과 선교의 이 2000년 동안 결혼과 가정은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었다.

1996년 선교사 탈락에 대한 연구(WEF 선교분과 위원회 연구의 일부)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정은 선교 인력의 방지 가능한 탈락 이유 중 두번째 주요 이유가 되고 있으며, 그것은 전체 탈락의 13%에 해당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성 파송국가들(호주, 덴마크,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에 있어서는 탈락자의 17%가 이 요인 때문이었다. 신생 파송국가들(브라질, 코스타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인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그들의 탈락자들 중 9%가 결혼과 가정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인력 문제나 심지어 건강 문제들도 어찌면 가정과 자녀들에 관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과 가정은 세심하

게 성서적으로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관점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독신과 결혼, 그리고 가정의 책임에 관한 토론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이니라”(고전 7:19)고 말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 15:22)라고 말했다. 사역이 종종 결과적으로 회생을 초래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셨으며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배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언급하셨다(막 10:29-30).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여호와께 대한 순종이 주요 안전이지 그분께 대한 혹은 그분을 위한 희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3-1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그려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종하는 종의 도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도 포함하여 그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2-1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다가와 자신의 희생의 상징으로서 동일시하셨으며, 배반자가 떠나가게 하신 후 핵심이 되는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사랑은 사실상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고후 5:19) 하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서 살아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는다(갈 5:22-23)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선교 전략의 핵심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그리고 이것이 돌봄의 신학에 대한 근거이다. 사도행전 2:42-47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서신서의 내용들은 이 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 계명의 중요성을 확정짓기 위해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5:15-6:9에서와 골로새서 3:15-21에서 아주 특이하게 사랑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시킨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1-14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으며, 이처럼 아이들의 복지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징계하는 것을 보여 주신다. 성경의 강조가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사 자녀들의 존재가 그들에게 탈락의 원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임을 인정하게 만든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닌 가운데 제사드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자녀들의 필요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이의 희생을 요구한 자는 몰래이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순종이다.

불행하게도, 지도자나 교사, 돌봄을 베푸는 자들, 파송교회 목사들, 선교 후원자들의 선교 공동체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좋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떠나지도 모른다. 만약 선교사 부모가 선교지로 가는 목적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일과 지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가정과 사역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극단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역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성경의 지침과는 다르다. 반면에 가정을 우상시 하거나,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역이 거부되고 희생을 당하는 것도 용납할 만한 것이 못된다. 사역하는 가정이란 어떤 때에는 사역상, 어떤 때에는 가정 형편상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또한 평생을 통해 가정과 사역 양쪽에게 서로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역하는 가정은 삶과 탈락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유용한 개념이다. 그것은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돌봄의 대상으로서, 각자가 돌봄을 베푸는 자로서, 그리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역하는 가정은

가정이라는 한 단위로서 모본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선교사 자녀를 돌봄에 대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 자녀는 성장하며 발달하여 언젠가는 한 성숙한 인간이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북미주의 성인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17%가 직업적인 선교사로 되돌아갔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Duvall, 1993). 그 같은 잠재력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들 부모보다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 더 잘 준비된 이 젊은이들을 개발하는 것은 사역하는 가정의 개념의 일부이다. 어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로 돌아가는 반면, 다른 자녀들은 정부나 사업, 교육 등 정상적인 선교를 통해서도 잘 만날 수 없는 분야의 사람들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수행해 나간다. 선교사 자녀들을 올바르게 돌보는 일은 현재의 탈락 방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타문화권 사역에 있어서 더욱 커다란 안정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관심

수년 전에 나는 뉴욕시의 유엔 학교에서 제3의 문화 아이들¹⁾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는 각자에게 왜 이 자발적인 세미나에 왔는가를 물었다. 미국 외에서 온 부모 모두는 자기 자녀들이 미국인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어른들이 자신의 본국에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문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서

울이나 쿼트, 마크라, 파리, 혹은 시카고에 남아있을 때와는 같지 않을 것임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녀들은 아마 어느 곳에서도 결코 완전히 고향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들은 다른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비교적 편안함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장소와 문화를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젊은이의 삶은 이동 때문에 망쳐지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문화적 상황은 아주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간과하게 해서는 안된다. 선교사 자녀라고 하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이란 두가지 특별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로, 선교사 자녀는 아주 유동적인 국제 사회에서 아주 유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언제나 오가며, 삶은 이별과 슬픔들로 가득 찬다. 불안정과 슬픔은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원과 위로, 돌봄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선교사 자녀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경험한다. 어떤 관점이나 가치, 행동들이 더이상 어떤 한 가지 문화적 그룹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선교지 문화, 국제 학교의 교실, 외국인 그룹, 다중 문화를 지닌 선교팀 모두가 선교사 자녀의 발달에 영향력을 미친다. 선교사 부모의 단일문화권에서는 거의 자동적인 것으로 여겨질 관점들, 가치들, 그리고 행동이 다중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매우 걱정을 한다. 그들은 질문한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사역을 한 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나라를 떠나 멀리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서 자라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자기 국적인 모국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

1) 제3의 문화아이란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0-18세)를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보낸 개인을 말한다. 제3의 문화아이/선교사 자녀는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적응할까? 그들은 적응하기를 원할까?

젊은이들도 역시 많은 질문을 한다. 나는 어디에 적응을 할까? 나는 어디에 적응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자라온 바대로의 나 자신일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출신은 어디인가? 나는 정상적인 것일까? 나는 어느 한곳이라도 고향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제3의 문화아이들이 모든 곳에 속하면 서도 동시에 아무 곳에도 속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의 제3의 문화아이/선교사 자녀들의 경험의 일부이다.

한 사람이 본래의 문화권으로 돌아오는 일은 국제적인 유랑인이 되는 것보다 종종 더 커다란 문제가 된다. 문화란 것이 더 명확히 정의되면 될수록 되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도전은 더 커진다. 행동 규범과 나이와 성(性),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관계들에 대한 지침들, 일하는 방식들은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그 문화권에서 살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게는 특히나 혼돈스러운 일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라온 선교사 자녀들은 그러한 규범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부모들의 또 다른 관심은 그 자녀들의 정체감의 범위가 그들이 자라오면서 알게된 문화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가정 내의 자녀들일지라도 환경에 대해 다르게 반응을 할지도 모른다. 표 23-1은 선교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네가지 기본적인 차원의 문화 적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더해 준다.

1. **거울.** 때때로 선교지 문화의 대다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선교사 자녀는 선교지 문화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태도, 행동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바람과

능력 때문에 빠르고도 쉽게 그 문화를 익힌다. 그러한 적합성 때문에 그 개인은 너무나 잘 적응을 해서 결코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선교지 문화는 “고향”이 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란 한국 청년을 들 수 있겠다.

2. **숨겨진 이주자.** 그 문화권의 대다수 사람들과 닮았다는 것이 선교사 자녀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해 주지는 않는다. 신체적인 유사성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이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지어 그가 행동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사상과 가치는 아주 다를 것이다. 부모의 모국 문화권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청년은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깊은 부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다. 케냐에서 자란 가나 청년은 이러한 상황의 한 예가 될 것이다.

3. **적용된 자.** 이 청년은 어쩌면 그 자신의 외모가 대다수의 사람들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리 중에서 아주 눈에 두드러지지만, 교육과 우정, 그 문화권에 대한 편안함이 그를 선교지 문화권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한 여아는 그녀의 부모가 교육을 마치기까지 유년시절 일부와 청소년기를 캐나다에

외모

		비슷함	다름
사고방식	비슷함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하게 생각함 거울	다르게 보이고 비슷하게 생각함 적용된 자
	다름	비슷하게 보이거나 다르게 생각함 숨겨진 이주자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함 외국인

표 23-1 문화적응의 4가지 수준

서 보냈다. 그녀는 외모만 빼놓고는 재빨리 모든 방면에서 아주 깊은 캐나다인의 정체감을 받아들였다. 고교시절 그녀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숨겨진 이주자”였다. 비록 그녀는 고국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겼지만 그들과는 아주 다르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4. 외국인. 여러가지 이유로 선교사 자녀나 제3의 문화아이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영구적인 외국인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스웨덴에 사는 에콰도르의 한 청년이 만약 남미인으로서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예가 될 것이다.

부모들은 종종 자기 자녀들 중에서 보게 되는 차이점들 때문에 혼돈스러워진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향력들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은 각각의 아이들을 한 개인으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여권에 적혀있는 나라로 되돌아 왔을 때 빨리 적응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아주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천천히 적응을 하거나, 부모의 모국 방식에 적응하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특히 동화되기를 강요받을 때는 반항적이 되는 아이는 종종 분노와 거부의 대상이 된다.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의 양육에 관한 통찰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기르든지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선교사 자녀들을 기르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성격적인 차이 하나만으로도 모국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차이들에 더하여 교사들, 친구들,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의 동료들이 변수가 된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의 발달과정과 어떤 경험들의 강도는 또 다른 변수가 된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의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 적응을 위한 갈등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교사 자녀 경험을 받아들이라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의 경험의 실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선교단체 행정가, 목사, 친척, 교사, 그리고 고용주들은 자문화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들이 정상이라는 것과 그들의 뿌리가 되는 공동체에서 자라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에 거론한 사람들이 그 차이점들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교사 자녀 경험을 옹호하라

만약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사 자녀의 생활 경험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옹호자가 된다면 그것은 선교사 자녀들이 더 잘 적응을 하고 그들의 경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선교사 자녀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 가족들과 교사들을 도와야 한다.

3. 교육적인 필요를 채우라

교육이란 중요한 관심사이다. 자신의 모국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 청년들이 본국, 즉 여권상의 나라에서 교육과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치르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교사들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제도는 변하며 부모는 자신들

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입학 시험을 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들은 외국 유학생의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인식은 자녀와 부모의 복지와 모국 문화권의 교육적인 기회들로부터 떨어져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전감 차원에서 중요하다.

기성 파송국가들은 자국 출신의 청년들을 위한 학교들을 개발할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과 과정을 제공해 주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근거 위에서 볼 때, 선교사 자녀 경험이 우리 청년들의 평생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신생 파송국가들은 마닐라에 있는 한국 학교처럼 그들 자신의 학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큰 학교 내에서 자신의 나라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국 교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이나 소수 그룹을 위한 가정교사들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4. 모국어를 말하라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권한이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서로 다른 언어의 배경을 가졌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각각 자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속 깊은 수준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각 부모의 모국에 갔을 때 조부모와 다른 친척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 젊은

이들에게 자신이 어디서 그들 생을 계속하며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5. 본국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라

만약 파송기관의 지도자들이 본국에 있는 교회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선교사 가족과 선교사 자녀들의 독특한 필요들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돕는다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책이나 세미나, 기사들, 비디오나 녹음 테이프, 인터넷 등이 이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어야 하겠다.

6.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라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건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국의 국정 공휴일이나 문화적인 행사일들을 경축하고, 자국어로 역사나 문학 작품을 읽는 일, 자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들은 자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인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지나간 세대의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친척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과 족보에 대해 가르치고, 가족 친지들의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집에 다 눈에 보이게 걸어 두는 일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과의 친숙함을 유지시켜 준다. 동료들은 다른 문화와 가족들, 그리고 경험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심이란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선교 공동체는 본질상 초문화적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 속에는 평등과 연합이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 우리들의 하나됨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준다. 그 존중의 일부는 우리들의 문화

적인 배경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차이점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이러한 존중을 보여 주는 것이다.

7. 문화적인 민감성을 개발하라

선교사 자녀/제3의 문화아이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언어 습득, 초문화적인 우정,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에게서 보는 초문화적인 좋은 모델, 그리고 섬기기 위해 이러한 민감성을 활용할 기회를 갖는 것 등은 중요하다. 그러한 초문화적인 면에서의 개발은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또한 일생동안 사용될 태도와 지식,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귀중한 것이다.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의 분리나 거부를 두려워하는 가족은 탈락자의 통계에 포함될 것이다. 자녀들의 적응과 교육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관심은 선교사역을 끝내는 강력한 사유가 된다. 자녀들이 모국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해 버리기도 한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들은, 자문화권이 아닌 외부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교육이란 학교보다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더 큰 세계에 대한 노출과 다른 언어와 문화들을 배우는 것은 교육적인 부산물인데, 이것은 만약 가족이 모국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다면 부모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노출은 한사람의 자녀에게 평생동안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선교사 자녀를 함정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비누방울”을 깨뜨려 버리게 해 준다. 그러나 부모는 옮겨 다니는 것의 아픔과 정체성의 갈등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기에는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파송 기관, 교회: 목양 제공자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우리들에 대한 관계와 우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나 교사들만의 일은 아니다. 교회 지도자나 선교 행정가들은 서로를 돌보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요한 13:34-35)의 일부로서 자신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선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표현된 사랑은 사실상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이루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탈락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의 중심은 각 선교단체와 선교단체들 사이에서 하나의 연속성 있는 돌봄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 있는 돌봄은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 그리고 각 선교사 자녀의 삶에 있어 다양한 시점에서의 다른 필요들을 인식한다. 어떤 때는 올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선교 인력의 성공과 지속에 있어서, 그리고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현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개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출국 전

사람들이 모국이나 자신의 문화적인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만약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라도 실패나 해를 받을 징조가 보인다면 파송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선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잘 떠나고, 적절한 기대를 갖게 되고, 장차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준비되도록 세미나와 자료들이 주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이러한 경험을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전체 과정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선교 현지에서

출국 전 준비의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출국 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접근방식과 잘 연결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도와야 한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각 자녀의 배경과 교육,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성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보를 주며, 그들을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조연자나 “문화적인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이같은 최선의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하다.

상담가와 목양 사역자들은 선교사 가족의 경험의 지속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 후원금이 부족한 것이 적절한 돌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될 때가 있다. 한 국가의 군사력의 많은 비율이 전투 부대가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는 비전투 부대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도 우리들의 과업에 대해 똑같이 진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관리는 필요하다. 극적인 경험들은 선교 공동체에 매일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도울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인력들이 선교 현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어른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사건일 수 있는 것이 6살짜리에게는 공포에 질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예측되는 위협이라도 9살짜리 아이에게는 실제 사건처럼 심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과도기

가족들이 현지 사역으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모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올바로 떠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사람들과 장소, 애완동물, 그리고 소유물들에 대해 만족스런 방법으로 작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모와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자녀들에게 잘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작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귀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른이나 아이가 다 귀국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사 가족이 변화했듯이 고국에 있는 사람들도 변했다. 모두가 이러한 쇼크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과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덜 놀라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욱 인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충격은 선교 사역을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것이 이미 계획된 일일지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선교사 자신이나 그 자녀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에 결코 적응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어떤 부모들에게는 선교 사역을 위해 귀임하려는 생각을 거부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적응에 대한 적절한 돌봄과 사려 깊게 주어진 정보들은 선교사들이 좀 더 이성적이 되고 보다 덜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보류하게 도와 줄 수 있다.

지속적인 돌봄

선교단체와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 관심자들은 한 선교사 부부가 해외 임지로 되돌아갈 때, 그들의 나이든 자녀들을 고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선교사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동안이나 직업을 구할 동안, 혹은 방학 때 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가정이 있다면 커다란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다.

성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나 학교 동문회,

선교사 가족 재회의 날, 또는 세미나들은 이러한 개인들로 하여금 어떤 필요가 있는가 밝혀 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이 자라는 동안 교육과 직업, 결혼 배우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준 경험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이 선교사가 된 미국 출신의 성인 선교사 자녀들은 그들의 청소년기에 주어진 지지와 돌봄이 그들 삶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Duvall, 1993).

가족적인 이유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때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선교 지도자들이나 목양 책임자들,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신들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가족 생활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적절한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료들이나 지도자들이 모두 깊은 이해와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적절한 후퇴를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나중에 더 오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각 선교 공동체는 그들의 독특한 가족적인 필요를 살펴야 하며 탈락의 구체적인 이유들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와 이유들이 밝혀질 때 현명한 지도자들은 반응을 할 것이며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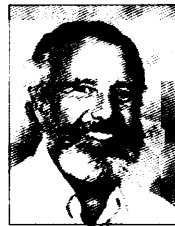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이다.”

참고

Duvall, N. S. (1993, 4월). MK-CART/CORE, Colorado Springs, CO.의 제7차 총회에 제출된 내용.

Taylor, W. D. (1991). Reflections of an MK: Breaking out of the tricky bubbl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7, 140-144.



데이빗 폴록(David Pollock)은 국제적으로 유동하는 가족들과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돌보기 위해 헌신된 조직체인 인터액션(Interaction, Inc.)의 이사이다. 그는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고, 많은 글을 쓰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제3의 문화” 공동체를

대변하는 일을 한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AIM)의 선교사로서 케냐에서 일했다. 초기에는 십대 선교회(Youth for Christ)와 맨하탄 기독교 청소년 봉사회와 더불어 청소년 사역을 했으며, 뉴저지에서 7년간 목회를 하기도 했다. 폴록은 인터액션에서 일하면서 뉴욕에 있는 호튼(Houghton) 대학에서 다중문화 프로그램의 이사를 겸직했고, 현재는 그곳의 협력 교수이다.

탈락문제에 관한 여섯 목사와의 인터뷰

윌리엄 테일러

선교사 탈락은 단순히 선교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열방기독교대학(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개최된 선교사 탈락 회의 참석자의 많은 수는 목회자들이었다. 다음의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대륙과 상황에서 온 목자의 심정을 지닌 여섯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과 의견들을 표현하고 있다.

빌 슈미트(Bill Schmidt)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로서 지금은 그의 목회 은사를 SIM Intl.에서 쓰고 있다. 오스왈도 빠라도(Oswaldo Prado)와 안토니오 까를로스 나세르(Antonio Carlos Nasser)는 브라질 목사로서, 역시 그 나라에서 커다란 선교단체를 책임지고 있다. 돈 맥켄지(Don McKenzie) 목사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편, 호세 신트론(Jose Cintron)은 미국에서 라틴계 회중을 섬기고 있다. 다우다 마이가리(Dawuda D. Maigari)는 나이지리아의 복음주의 선교회(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의 1,000여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그의 목회적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여섯명의 목사 모두가 1996년 탈락 워크숍에 참석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다.

선교사 탈락에 관한 경험

[질문] 빌 테일러: 목사의 관점에서, 선교지에서

일찍 돌아오거나 혹은 본국 사역 후에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는 선교사들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대답] 빌 슈미트: 아, 그 말씀을 들으니 놀랍게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 오는군요. 제가 29년 동안에 목회했던 두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들 중에 점수를 매길 수 없는 “탈락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사람은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가 새로 개척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여성도와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성공적이고 열정적인 교회 개척가로서 아마도 열두개 정도의 건실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관여했을 것입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그의 결혼 생활이 파괴되어 가는 징조를 보고서도 그것은 “그들이 늘상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 거라고 짐작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처럼(애정이 나 로맨스가 없고 하나의 사업 관계로)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해 버린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다시 한다면 그것을 따져 보려고 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개방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감독을 잘하는 주요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었지요. 우리들 모두는 그

조짐을 보았었지만 그 문제에 관한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선교지로 찾아가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은 그들이 늘상 그런 식으로 살거나 혹은 단순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애쓸 뿐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 감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상황을 교회에 보고하면서 후원 증지를 제안했었지만, 단순히 그 가족이 교회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후로 20년간을 선교지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탈락자의 통계에 올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불안과 혁명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난 또 다른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 위기는 남편의 약점을 노출시켰고 악화시켰는데, 그 약점 중에는 주님의 인도에 관해서와 매일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 유발과 위로에 관한 이상하고도 주관적인 신비주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가족은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지요. 결국, 그들은 순복하기보다는 사역을 그만두고 말았답니다.

한 선교사는 전쟁에서의 부상으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두통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일본에서 죽었지요. 또 다른 사람은 저의 관찰과 선교지의 방문에 의하면 놀라운 전도자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그 선교사는 약간 저능아인 자기 딸을 교육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 마지막 이유, 즉 자녀들의 교육은 계속해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인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분야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저

는 독신 생활과 복음을 위하여 자녀를 갖는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성경적인 권고를 했습니다.

오스왈도 뿌라도: 브라질에서의 최근 선교 역사는 기쁘게도 급성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교지에서 정서적으로 깨어지거나 더 나빠져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어렵고 종종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정서적인 치료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교단체에 대한 분노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나세르: 저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상의 어려움을 가진 한 선교사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단체 지도자가 “사과합니다”(I apologize)라고 말했을 때 그 선교사는 그가 진정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를 구하지”(Forgive me)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는 또한 “사역 기금”에 관한 선교단체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산 물건이 어떻게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다른 선교사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돌아가기 전 2년을 브라질에서 머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간 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그녀의 교회 목사님은 저더러 선교단체 지도자로서 그녀를 브라질로 돌아오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녀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 정서적으로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져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와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으며, 감사하게도 그녀는 나중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 선교사의 모교회 목사님은 각 후보 선교사의 생활과 배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상황과 그가 파송될 특정 선교지에 관련된 준비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는 파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 돈을 모아 준다든지 함으로써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정의 부족을 통해서 출발의 순간을 지체시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게 될 선교사들은 선교단체에서 무슨 언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사전에 알아야 하며 그 언어에 능숙해야 합니다. 선교사 사역을 위한 준비는 공식 훈련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새 선교사들이 나가기 전부터 지역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 내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들은 파송교회 목사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 된다면 선교 임무를 위해 출발하기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우다 마이가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인 기회가 부족한 것이 어떤 사람들이 현지를 떠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든 부모의 부양도 하나의 문제이지요 어떤 선교사들은 목회를 하기 위해 선교지를 이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생각건대, 처음부터 선교 사역을 위해 성령께서 그들 생애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호세 신트론: 파송 전 선교 훈련의 부족과 더 나아가 선교지에서의 감독 부족이 우리 선교사들로 하여금 귀국과 선교지 귀임을 원치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다루고 있는데, 그녀는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 아직도 다시 돌아가기 싫은 마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맥켄지: 저는 조기 귀국하였거나 모국 사역 이후 해외로 되돌아가지 않은 꽤 여러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한 훈련과 준비는 세가지 분명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와 신학적/선교학적 준비, 그리고 모교회에 의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외 사역에 적절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때때로 우리는 과보호함으로써 오류를 범합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넘어질 때면 거기엔 언제나 그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화장치는 지원 체제가 보잘 것 없는 곳에서 힘든 해외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지혜롭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훈련과 준비, 돌봄을 위한 가당한 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과보호와 적절한 목양 사이에는 아주 민감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했던 또 다른 분야는 동역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소홀히 한 것이었지요. 우리는 남편에게 실제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남편을 준비시키는 데에는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는 종종 소홀히 하게 되었고, 아내가 원인이 되어 몇몇 부부나 가족들은 조기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불건강한 강조, 즉 자녀들을 놓아주는 데 대한 두려움, 과보호,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편집증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지의 선교 지도자로 하여금 선교 전략을 세울 때 이같은 불건강한 경향을 나타내 보이는 부모들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선별하는 한 척도로서 우리는 해외 선교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자기 자녀들을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지켜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녀들에 대한 위협부담을 감당치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의심하게 된 네번째 영역은 선교학적인 준비의 결여입니다. 우리는 통계상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신학 교육과 더불어 건전한 선교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학적인 훈련만 받은 사람들보다는 탈락율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탈락 이유

[질문] 테일러: WEF 선교 분과위원회의 탈락 연구팀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25가지의 이유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들 중 타문화 선교를 “포기”하거나 철수하게 된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대답] 신트론: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지역 교회의 재정적 후원과 기도의 부족일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영적 미성숙이 거의 두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지도자들과의 대인관계 문제들 또한 선교사의 귀국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쁘라도: 우리들의 연구 조사 결과는 브라질에서의 탈락의 주요 원인이 적절한 훈련의 부족과 파송교회의 헌신도 부족, 그리고 선교사의 정서적인 미성숙과 파송 기관과의 상호 이해부족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세르: 저는 부적절한 재정 지원의 문제가 가장 강력한 탈락 이유라고 믿습니다. 브라질 교회의 진정한 헌신도 부족은 심각합니다. 일년 이내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약속된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강력한 이유는 현지 지도자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만약 선교 팀이 국제적인 것이라면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미비한 것이 심각한 결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이며, 겸손은 순종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맥켄지: 선교사 탈락에 관한 저의 경험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해외 사역에 대한 아내의 준비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것과 부모들이 마땅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 치러야 할 위협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이加里: 제 경험으로는,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건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서 자녀들의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상황 등이 포함되지요. 혹은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나 모교회에 대해 실망을 해서 어설피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낫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의 목회 요청이나 연로한 부모님의 필요와 같은 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적, 영적 미성숙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최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슈미트: 선교지나 사역을 떠나는 이유에 관한 주요 토론은 자녀 교육 문제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제안된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을 본국에 왔다가 그후 선교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미국 생활에 재적응을 한 후 해외로 결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또한 많은 경우에 그것은 태도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어쩌면 후보자 선발 영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점들을 후보자들의 미성숙이나 허용할만한 흠이라고 그냥 지나치고 말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개인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앞으로 성숙할 것으로 간주하여 선교지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견뎌내고 심지어 생존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계속해 나가는 중에 굉장한 스트레스의 파문과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귀국하는 것이 전체 그리스도의 일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숙함에 따라 저의 직관적이고 내적인 감각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게 되는데, 후보자를 선별할 때 의심스런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허입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밝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질문] 테일러: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 신트론: 지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서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선교사 후보자들은 그 성품이나 영적 성숙도가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加里: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치러야 하는 대가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일단 선교사가 현지에 가게 되면 교회는 서신을 통해 접촉을 계속하며, 재정적인 도움을 보내며, 가능하다면 심지어 방문도 하는 등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후보자들에게 그들이 신체적으로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팀의 일원인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또한 선교단체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지원자가 선교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비록 그러한 정직성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다양한 사역 경험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 중 한사람이 선교 사역을 위해 지원할 때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 이미 어떤 사역에 있어 인정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슈미트: 교회는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분별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본국에서의 문제는 선교지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하나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국에서 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맺은 선교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교회에서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선교지에서 결코 제자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절대적이고, 타협함이 없으며, 권위적이며,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설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자기네 사람들을 적어도 35%까지는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 더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의 일차적인 감독과 평가, 선교지 전략에 대해서는 경험 있고, 비전과 방법론과 자원을 지닌 선교단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만일 해야 할 역할을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이 선발되고 현지로 나가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행정적인 지도력을 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귀국하여 행정적인 직분을 갖게 될 때 그들에게 후원금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분은 필수적이며, 그 부부는 종종 자녀 교육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선교지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세르: 교회 지도자들은 각 후보자들과 진지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워크 사역에 있어서 비형식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후보자의 권위에 대한 반응, 다른 교회의 신자들과의 교류, 돈을 다루는 법, 그들의 배우자와 이성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기술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파송기관을 알아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단기 사역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 후보자의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벗어나 사역하려는 것은 정신난간 일입니다!

쁘라도: 지역교회는 종종 선교 사역에 있어 소의를

당하곤 합니다. 이곳 브라질에서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역교회와 관련이 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들의 선교사들에 대해 갖는 교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우선권을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은 많은 조기 귀국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후보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한 도움은 선교사를 선교지로 너무 일찍 파송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또한 교인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재정적이고도 영적인 후방 지원자로서의 책임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후보자들이 각자의 기능을 건강하게 통합해 나가는 목표를 지니고 서로 효과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백켄지: 우리는 해외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좀 더 잘 준비시키고 탈락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도 실제적인 경험을 위한 기회를 주어 봅니다. 다시 말해, 가능하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한 유사한 준비 프로그램을 모교회 수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들은 모교회 준비 과정에 있는 동안 단순히 유치원의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가도록 요구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 내에 있는 필요를 찾아내고, 그 필요를 언급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해외 사역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킴으로써 지도력 이양에 대하여 점점을 받도록 하지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훈련생이 홀로 살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살도록 일정 기간 교회 바깥에서 사역할 기회를 찾아 분담합니다. 우리는 또한 훈련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단순히 권면하기 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장될 수 있는 사역을 시도

해 보도록 권하지요.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그 경험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준비 기간 중에 훈련생 가족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자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를 하며, 부모는 자녀들과 어떻게 교류하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모교회 훈련 과정 중 부부나 가족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훨씬 더 의도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결과 그 부부가 해외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들을 파악해서 그러한 영역에서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모교회 훈련 과정 중에 “짜”(성숙한 가정)를 지정해서 각 훈련생 또는 가족들의 삶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정된 기독교 상담 기관도 활용하지요. 이 역시도 부적절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훈련생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상담은 준비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부부들을 격려하여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 모교회 내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개발하도록 돕지요. 그 사람은 경청을 잘하고, 언제 가만히 있고 언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선교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삼았어요. 서신 교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신뢰의 요소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서신 교류는 목사의 방문과 맞먹지만, 목사의 생활에 있어 여러날을 떼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제대로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의 후원 필요의 80% 내지 90%를 채워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발 전 몇 달을 재정 모금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모국 사역의 많은 부분이 모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탈락자” 돕기

[질문] 테일러: 타문화 선교를 “포기”하거나 조기 귀국, 또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교회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구체적 일들은 무엇 일까요?

[대답] 나세르: 선교사들을 실제 인간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그들에게는 관심과 인간적인 손길, 용납과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들은 개인적인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비로움을 통해 치유됩니다. 정죄하는 비판은 상처받은 선교사를 회복시키는 것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교회는 선교사들의 신체적, 지적 필요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돌아온 사역자들에게 좋은 휴가를 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그들이 현지를 떠나게 된 과정을 거꾸로 짚어 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의 길로 되돌아 갈 수 있는지 보여 주세요. 사역자로서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사랑어린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교사와 선교단체 사이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면 지역교회는 또한 이들 사이에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슈미트: 지역교회는 부부나 한 개인이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그런 점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실패했다는 멧시지를 준다면, 선교사들은 아마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 선교사들의 삶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만약 그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선교사가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나라는 제가 처음에 살면서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나라가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기에 두기로 하셨다면 그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지요”

마이加里: 지역교회는 귀국한 선교사가 모국에서 교회 개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방문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각의 경우에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들에게는 삶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며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선교사들은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혹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트론: 이 경우에 교회의 기본 역할은 돌아온 선교사들이 내적 치유 과정에 들어서도록 돕고 사역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맥켄지: 조기 귀국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돌아온 선교사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목양을 해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온갖 찌꺼기와 굵은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필요할 때는 인정받고 있는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선교사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귀국했을 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의료 보험과 세금 문제, 정부 혜택, 구직 등에 있어 도움을 줍니다. 조기 귀국한 사람들이 당면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갈등들을 돕기 위

해 최대한의 자원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선교단체와 교회

[질문] 테일러: 선교사들이 타문화 선교를 행복하고도 효과적으로 지속하도록 돕는데 있어 선교단체의 역할은 지역교회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대답] 마이가리: 저는 이것을 단지 일반적으로만 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교단체는 그들 선교사의 특정한 타문화 환경에 익숙하므로 사역을 위한 준비,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문화 충격 및 재입국 문화 충격의 처리, 감정적인 공감(그들이 비교적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선교단체는 또한 현지 감독을 하고, 현장 교육을 제공하고, 상담 및 자녀 교육을 도우며, 기도의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기도하며 선교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죠.

신티론: 제가 믿기로, 선교단체는 선교 사역을 돌보며 감독하는 반면 교회는 선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라 봅니다.

맥켄지: 제게는 선교단체와 모교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세워 주고 훈련하는 것에 책임이 있고, 선교단체는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교회는 점진적으로 평가를 하고, 선교단체는 그 최종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국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목양을 베풀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만이 해줄 수 있는 현장 목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과 보고를 하고 재충전과 회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반면, 선교단체는 결과 보고를 하며 교회와 관련을 맺어 선교단체의 요구와 회복 및 재충전 사이에 균형이 있도록 합니다. 선교단체와 교회는 선교사의 귀국 이전에 함께 노력하여 선교단체를 위한 적절한 보고 사역을 하고 모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위해 재충전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야 합니다.

쁘라도: 아직도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능들이 중복되어 왔어요. 목사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서 이러한 기능들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장래 선교사들의 시험대일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의 위치를 결코 차지할 수 없어요. 반면에, 선교단체의 몇몇 기능들은 지역교회의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슈미트: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우리 사회의 군대와 시민 간의 차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전쟁에서는 같은 적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군대가 전쟁하고 있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전쟁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실재인 것입니다. 시민 측에서는 인력과 자원, 심지어 전쟁을 위한 약간의 감독을 제공하지요. 또 사랑과 기도, 관심 어린 돌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전쟁에서 싸울 전략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군대에 의해 치러지죠. 이웃 빵집 아줌마는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강력한 기도의 군사는 될 수 있을지 언정, 전쟁에 대해서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지역교회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거대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선교단체와 함께 주체성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선교사를 보내고, 위하여 기도하며, 지원하지만, 선교단체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전쟁에 임하도록 세워 주는 것입니다. 두 부류는 한 실재입니다. 어느 한쪽도 혼자 이길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없이 계속해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역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세르: 저는 선교단체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교회와

같은 관점에서 보지 못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교사들은 몇번의 인터뷰와 많은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파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관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선교단체는 그들의 현장 사역을 담당하는 책임자이지만, 그들의 부모는 지역교회입니다. 문제는 선교사가 한 선교단체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역교회와의 관계를 저버릴 때 훨씬 더 곤란해집니다. 결국에 그들은 한쪽의 후원 체계를 놓쳐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준비하라

[질문] 테일러: 지역교회는 선교사를 세우고 훈련하는 데 있어 정규 선교사 훈련학교나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요?

[대답] 나세르: 생활이죠! 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정규 공부는 이러한 관계들을 항상 증진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들이 영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붙들지는 않지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등의 사역을 위한 기회들, 지역교회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장소예요. 정규 훈련에서도 이런 기회들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학교와는 달리 교회는 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해 있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해답을 추구하고 있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하면서 말입니다. 지역교회는 종종 그 사역자의 가족, 과거의 관계들, 배우자나 약혼자의 가족과 친구 등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목양과 동료관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場)은 전문가에 의한 몇몇 인터뷰보다 훨씬 더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지요.

신티론: 교회의 주된 힘이란, 제 관점에서는, 좋은 성서적 성품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사역 경험을 위한 장(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이가리: 바라건대, 한사람이 지역 교회에 참여할 기간이 훨씬 더 오래고 그 기간에 사역을 위한 기회들도 단지 몇 개월 혹은 불과 이년 정도만 계속되는 학교에 의해 제공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되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장 실습 형태의 훈련입니다. 지역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를 줍니다. 교회는 학교가 잘 가르칠 수 없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지도력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공식적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해하기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는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쁘라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역 교회는 선교사를 알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학문적인 발전이란 언제나 중요하지만, 선교사 후보가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숙의 표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는 곳은 교회 안일 것이며,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소규모 가정 모임 등을 인도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슈미트: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소명과 부담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만나는 “선교사 후원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책을 읽고 토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진전과 실망에 대한 간증을 들었으며, 세계의 요리 시간도 갖고, 방문중인 선교사를 인터뷰도 하며, 전체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함께 모였지요. 저는 지금은 제가 그때 했던 것보다 그런 그룹의 가능성에 대한 더 발전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 회중이 크고 잘 짜여졌다 할지라도 지역교회는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일하는 현지 선교사의 전략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뒷받침해 주는 선교단체가 없이 직접 현지로 나간 선교사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교단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언어, 정부, 시민 생활, 재정,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에 관한 지원의 문제를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제에 빠지면 그들은 결국 그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고는 적절한 선교단체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백젠지: 지역교회는 공식적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여러 방식으로 해외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지요. 첫째로, 교회는 훈련생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그들의 안전 지역에서 벗어나 신학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천에 옮겨 보도록 만들지요. 훈련생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신장되며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지역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안에서는 평가를 위한 살아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약점과 강점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훈련생들은 연약한 분야에 대해 노력할 수 있으므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정규 대학 과정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시간 이후의 후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과 기도 후원으로 이어지는 관계 형성은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야 할 먼 길인 것입니다. 이 관계의 네트워크는 대학 시절의 시간이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며, 대학을 마치고 자신의 모교회에서 바로 해외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넷째로, 저는 모교회가 훈련생들이 대학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훈련을 돕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훈련에 대해 훈련생과 이야기하는 것과 아울러 그 주제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기유발과 자신의 책임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할 수 있지요.

정리

목회자들의 탈락 문제에 대한 통찰력은 굉장히 귀중하며, 이 혼합된 구성의 인터뷰에 의해 제공된 반응의 다양성은 지혜와 경험의 부요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먼 타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선교사들에 대한 깊은 목회적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열정을 갖고 이러한 관심을 나누어준다면 우리의 많은 탈락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선교사 목양을 위한 자료

켈리 오도널

선교사를 위한 목양은 단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장에 있는 자료는 누구든지 목양이 필요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¹⁾ 목록은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세계에 있는 약 125개의 서비스 기관(기본적으로 기독교 그룹)을 포함하는 좋은 견본으로서, 그들 대부분은 선교 인력의 돌봄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된 서비스 강조점은 목양, 심리학적 인 자문, 훈련, 상담, 그리고 의료적인 자문이다. 이러한 목양은 선교단체들이 이미 자기네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 기관들은 개인적인 성장과 사역의 효율성을 자극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목양 전략의 중요 부분이다.

이 안내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관심이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런 후 각 목록 아래 나와있는 서비스의 간단한 소개문을 읽어 보라. 좀 더 특정한 서비스 유형, 비용 구조, 사용 언어, 배경

과 경험, 혹은 소개받을 사람)를 위해서는 하나나 그 이상의 목록을 접촉해 보라. 여러 기관들에서는 그들이 위치해 있는 나라 바깥에서의 서비스도 현지 방문과 팩스, 이메일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가능하면 각 나라나 지역의 복음주의협의회를 접촉하여 소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필요들과 잠재적인 상담가나 자문가가 줄 수 있는 도움의 형태가 서로 잘 들어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과 열린 대화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사를 위한 목양 자료를 찾는 것은 이와 같은 “공적” 목록보다는 구두로 조심스레 이루어진다.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때에는 보안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도록 하라.

지면 제한과 정보 부족 때문에 여러 다른 훌륭한 기관들이 여기 포함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어떤 지역들은 실제로 그 지역들 내에 서비스 기관이 많지 않기도 할 뿐더러 보안상 일부러 수록되지 않았거나 강조되지 않았다. 장차 이러한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 주기 바란다.

1) 이 안내서는 1996년 1월에 발간된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의 “목양 가이드”를 최신화한 것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가나

Africa Christian Mission

Seth Anyomi, Director
Box 2632

Accra, Ghana

Tel: 233 21 775268 Fax: 233 21 775268

E-mail: skanyomi@ncs.com.gh

재입국 자문, 위기/충격 보고, 의학적 평가/배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IACC의 참고를 보라.)

Beullah

P.O. Box 290

Wellington 7655, RSA

Tel: 27 21 864 1083

성인들을 위한 리트릿 센터 / 휴식, 재충전.

Rosebank Union Church Counseling Center

David and Lorain Wilkinson, Coordinators
33 Cradock Ave.

Rosebank, Johannesburg, RSA

Tel: 27 11 788 5133 Fax: 27 11 880 5517

일반 상담, 위기 중재.

케냐

Tumaini Counseling Centre

Roger Brown and Richard Bagge, Directors

P.O. Box 21141

Nairobi, Kenya

Tel/Fax: 254 2 724725

E-mail: roger_brown@aimint.org

AIM/위클리프와 연합 사역, 개인, 결혼, 가족 상담, 사건 보고, 정신의학적 자문, 팀 구성, 세미나와 참고 도서 제공.

GEM Counselling Centre

Emy Gichinga, Director

P.O. Box 44128

Nairobi, Kenya

Tel: 254 2 729922

일반 상담.

Oasis Counseling Centre

Gladys Mwiti, Director

P.O. Box 76117

Nairobi, Kenya

Tel: 254 2 715023/ Fax: 254 2 721157

일반 상담.

아시아

대만

Counseling Services Center

Steve Spinella, Director

Ta Yi Street, Lane 29 # 18, 2f-1

Taichung 404, Taiwan

Tel: 88 64 236 6145

E-mail: Spinella@ms5.hinet.net

기독교 난민을 위한 상담과 자문.

말레이시아

Calvary Life Ministries

Pam Guneratnam, Director

Kuala Lumpur, Malaysia

일반 상담.

싱가폴

Member Care Associates, Asia

Ron and Barbara Rohnert-Noll,

Coordinators

c/o 1 Dorset Road

Singapore

Tel: 65 291 9744 Fax: 65 299 5040

E-mail: 73422.3170@compuserve.com

아시아 상담원 훈련, 위기 중재, 사역지 방문, 심리학적 자문, 세미나, 팀 구성, 상담.

Singapore Centre for Evangelism and Missions

Andre De Winne, Director

P.O. Box 1052

Raffles City, Singapore 9117

Tel: 65 299 4377 Fax: 65 291 8919

E-mail: scem@swiftech.com.sg

파송기관과 교회들을 위해 회원을 돌보는 훈련 행사 주관.

TOUCH Community Services

Dr. Eliza Lian-Ding (psychologist)

Esther Wong (marriage/family counselor)

66 East Coast Road

#07-00 GRTH Building

Singapore 1542

Tel: 65 440 3141 Fax: 65 346 7986

상담, 부부 및 가족 요법, 흑사당한 생존자 치료.

인도

India Missions Association

M. C. Mathew, Health Advisor

48 First Main Road

East Shenoyanagar

Madras 600 030, India

Tel: 91 44 617596 Fax: 91 44 611859

현재 인도에서 선교사의 건강을 돌보는 기관을 만들고 있음.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 of India

2, A-3 Local Shopping Centre

Janakpuri, New Delhi 110058, India

인도네시아

Counseling Department

Reformed Seminary of Indonesia

Dr. Paul Gunadi, Chairman

Jakarta, Indonesia

참고 자료 제공.

일본

Member Care Task Force

Japan Evangelical Mission Association

OCC Building, 2-1 Kanda

Surugadai Chiyoda Ku, 101, Japan

Tel: 81 03 3295 1949

회원 단체 간의 중개기관 그룹.

태국

Juniper Tree

P.O. Box 1

Petchasem Rd.

Hua Hin 77110, Thailand

Tel: 66 32 511 139 Fax: 66 32 511 140

방콕에서 남부로 버스를 타고 3시간 거리의 조용한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침과 재충전을 위한 편의시설.

Raintree Community Services

Esther Wakeman, Contact

P.O. Box 251

Chiangmai 5000, Thailand

Tel: 66 53 306 317 Fax: 66 53 306 419

태국 사람과 외국 난민을 위해 영어와 태국어로 치료 상담.

필리핀

Alliance Biblical Seminary

George Blake, Contact

Metro Manila, Philippines

심리학 상담과 크리스천 공동체 상담의 M.A. 과정을 제공한다.

Eirene Psychological Services

Naomi Basilio, Contact

3 C. M. Recto Street

8000 Davao City, Philippines

Tel: 63 82 221 4702

상담, 평가, 영어와 따갈록어 세미나.

SIL, Ortigas Center

Leslie Christian, Contact

P.O. Box 12962

1600 Pasig,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63 2 631 3839 Fax: 63 2 632 1216

E-mail: leslie.christian@sil.org

SIL에서 아시아 지역을 돕는 상담원.

Youth With A Mission

Brenda Bosch, Contact

P.O. Box 196

Q-Plaza P.O.

1900 Cainta, Rizal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63 26 46759 Fax: 63 26 467368
E-mail: 103626.316@compuserve.com

인력 개발, 보고, 사역진 오리엔테이션, 재입국 자문.

한국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Sung Sam Kang, Mission Board Director
1007-3 Dachi 3-Dong
Kangnam-Ku, Seoul, Korea
Tel: 82 2 564 5253 Fax: 82 2 563 7716
E-mail: p564@chollian.dacom.com.co.kr

훈련, 상담.

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 (GMTC)

Dr. David Tai-Woong Lee, Director
231-188, Mok 2-Dong
Yang Chun-Ku
Seoul 158-052, Korea
Tel: 82 2 649 3197
E-mail: gmtc@chollian.dacom.co.kr

M.K. Ministries Department

Global Missionary Fellowship
Ms. Ruth Baek or Ms. Soon-Nam Park, Contacts
Yang-Chun
P.O. Box 144
Seoul 158-600, Korea
Tel: 82 2 652 3519 Fax: 82 2 653 3870

홍콩

Dr. Agatha Chan

c/o 1104 East Point Centre
555 Hennessy Road
Causeway Bay, Hong Kong
Tel: 852 2834 9536 Fax: 852 2577 9751

상담, 훈련평가 서비스, PTSD work. 영어와 광둥어 사용.

Hong Kong Assoc. of Christian Missions

Terina Khoo, Contact / Psychologist
340 Portland Street, Unit 2, 6F
Mongkok, Kowloon, Hong Kong
Tel: 852 2392 8223 Fax: 852 2787 4299

평가, 상담, 사역지 방문.

Rebecca Dnistran

2B Shrewsbury #54, Stanley Fort
160 Wong Ma Kok Road
Stanley, Hong Kong
Tel: 852 533 9545 Fax: 852 2899 0773

심리학자와 상담가/가족, 개인, 부부와 함께 영어 사용.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Dr. Lorna Jenkins

P.O. Box 89126
Porbay, Auckland, New Zealand
Tel/Fax: 64 9 473 0349
E-mail: becejay@deepthnk.kiwi.gen.nz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참고 자료 제공.

The Work Trust

Don Smith, Contact
Box 144
Wellington, New Zealand
Tel: 64 4 496 2312 Fax: 64 4 496 2341
E-mail: don.smith@mohwn.synet.net.nz

심리학자, 선교위원회 자문으로 현재 NZ 상담자들의 복록 수집을 돕고 있음.

호주

Christian Psychological Services

Cliff Powell, Director
P.O. Box 640
Mona Vale, NSW 2103, Australia
Tel: 61 2 9997 1565 Fax: 61 2 9979 6943

개인,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요법 / 심리적 평가 / 사역과 선교에 대한 적용 / 워크샵.

Christian Synergy Centre

Kath Donovan and Ruth Myors, Directors
204 Wommara Avenue
Belmont North, NSW 2280, Australia
Tel/Fax: 61 49 458484

선교사 지망생, 휴가중인 선교사, 그리고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리트릿과 세미나 / 선교사와 목사 평가와 선발.

Christian Wholeness Counselling Centre

John Warlow, Director
28 Palmer Street
Greenslopes, QLD 4120, Australia

Tel: 61 7 3847 3622 Fax: 61 7 3394 4876

전문 상담원에 의한 개인과 가족 상담 / 세미나와 워크샵.

El Kanah Counselling

Loris Gillin, Director
39 Sackville Street
Kew, VIC 3101, Australia

Tel: 61 3 9817 5654

개인, 아이, 결혼, 그리고 가족 문제들에 대한 치료요법과 자문 서비스 / 심리적 평가.

**Lesmurdie Baptist Church
Counselling and Support Sevices**

Colin Taylor, Coordinator
Brady Road
Lesmurdie, Western Australia

Tel: 61 9 291 9866 Fax: 61 9 291 5018

상담, 상담 훈련, 세미나, 지원 서비스 / 지역 리트릿 센터들과 연계되어 있음.

유럽

네덜란드

CVPPP

D. H. van Noort, Contact
Dr. van Dalellan 42
3851 JB Ermelo, Netherlands
Tel: 31 417 50090

네덜란드 전역에 걸친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 협회. 잡지 발간과 심리학적/영적 주제에 관한 모임들을 조직.

**Instituut voor Transculturele
en Missionaire Psychologie (ITMP)**

Margrete Bac-Fahner and
Marjan van Nus, Coordinators
Postbus 542
6710 BM Ede, Netherlands

Tel: 31 30 243 7673 or 31 318 639750

Fax: 31 318 591015

E-mail: cfahner@chsede.nl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학적 서비스 상담, 치료 요법, 평가, 테스트, 그리고 훈련을 포함함.

노르웨이

Diakonhjemmets International Senter

Mirjam Bergh, Contact
Capralhaugen 81

1342 Jar, Norway

Tel: 47 22 451808 Fax: 47 22 451810

E-mail: bergh@dis.no

상담, 심리학적 자문.

Instituut for Sjelesorg

Jorgen Korsvik, Contact
Postboks 60

3371 Vikersund, Norway

Tel: 47 32 788155

크리스천 상담 센터.

Drs. Bjorn and Solveig Lande

c/o Norwegian Santal Mission
Hoenskollen 7

1370 Asker, Norway

Tel: 47 66 782897 Fax: 47 66 784217

정신의학적 자문.

덴마크

Danish Missionary Council

Birger Nygaard, General Secretary
Skt. Lukas Vej 13
2900 Hellerup, Denmark

Tel: 45 3961 2777 Fax: 45 3940 1954

E-mail: dmr@inform-bbs.dk

과송 전 훈련, 정신의학적 자문, 상담, 보고, 그리고 졸업단계 훈련을 포함하여, 덴마크에서 덴마크인 선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과 개인의 네트워크를 조직함. 다음의 덴마크 목록은 이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DUO

Anne Karin Lauritzen, Coordinator

Torholmsvej 59 9800

Hjorring, Denmark

Tel: 45 9892 5097

제3의 문화 아이들에 대한 세미나와 자문 제공.

Institut for Diakoni og Sjaelesorg

Benny Birk Mortensen, Coordinator

Kolonien Filadelfia

4293 Dinalund, Denmark

Tel: 45 5826 4200 Fax: 45 5826 4239

선교사들을 위한 보고, 개인 상담, 리트릿.

Missionary Fellowship

Ove Bro Henriksen, Coordinator

Gyvelej 22

761 Ejstrupholm, Denmark

Tel: 45 7577 2904

이전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 세미나, 그리고 캠프 운영.

독일

Deutsche Gesellschaft

fuer Biblisch Therapeutische Seelsorge

Michael Dietrich, Chairman

Hackstr. 60

70190 Stuttgart, Germany

Tel: 49 711 285230 Fax: 49 711 285 2399

성서적 상담의 기본 훈련과정. 몇몇 지역 사무실과 함께 독일에서 훈련된 상담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음 주소에서 상담과 정신요법 클리닉을 한다.

Bethel-Christliche Fachklinik

Charlottenstr. 33

75323 Bad Wildbad, Germany

Tel: 49 7081 1520 Fax: 49 7081 152174

Hohe Mark Klinik

Arne Hoffman, Contact

Friedlanderstrasse 2

61440 Oberusel, Germany

Tel: 49 6171 2040 Fax: 49 6171 204440

E-mail: 100420.2124@compuserve.com

입원 및 외래환자 서비스를 하는 크리스천 정신과 시설. 독일어로 상담 서비스를 하며 또한 폴란드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도 가능. 충격과 정신질환 치료.

IGNIS

Werner May, Director

Kanzler-Sturtzel-Str.2

97318 Kitzingen, Germany

Tel: 49 9321 13300 Fax: 49 9321 133041

상담 센터, 기독교 심리학 대학원 과정, 독일어권에 상담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또한 입원환자를 위한 정신요법 시설 운영.

Member Care Network

Friedhilde Stricker, Contact

Kirchberg 2

74243 Largenbrettach, Germany

Tel: 49 7946 915131 Fax: 49 7946 915130

E-mail: hartmut.stricker@t-online.de

독어권(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회원 주소 제공.

Renew International Counseling Service

Rhonda Pruitt, Contact

Kurfursten Str. 133

10785 Berlin, Germany

Fax: 49 30 265 1426

E-mail: 104521.1106@compuserve.com

선교 공동체를 위한 전문 상담 / 크리스천 상담과 타문화의 적응 세미나.

러시아

Moscow Christian School of Psychology

Alexander Valentinovich, Director

13 Yaroslavskaya Street

Moscow 129366, Russia

Tel/Fax: 7 95 283 5150

E-mail: wmah@ipras.mak.su

심리학 대학원 과정.

미국 사무실:

c/o Dr. Janice Strength

Tel: 714 491 7837

E-mail: jmstreng@ix.netcom.com

루마니아

(헝가리의 SHARE를 보라.)

벨기에

Center for Pastoral Counseling

Jef De Vriese, Contact
Heverlee/Leuven (by Brussels), Belgium
목회 상담 대학원 과정 및 상담 서비스

스위스

Centre Chretien de Psychologie

Daniel and Denise Bouvier, Directors
13 rue de la Colombiere
1260 Nyon, Switzerland
Tel: 41 22 361 6505 Fax: 41 22 361 6507
불어와 영어로 상담.

Development Associates International

Scott Morey, Contact
Chemin des Croisettes 28
1066 Epalinges, Switzerland
Tel: 41 21 651 7761 Fax: 41 21 651 7762
E-mail: 100070.1445@compuserve.com
지도력 개발과 관리 자문.

Evangelical Institute of Missiology

Stefan and Kathi Schmid, Coordinators
Route de Fenil 40
1806 St.-Legier, Switzerland
Tel: 41 21 943 1891 Fax: 41 21 943 4365
선교사들을 위한 불어과정 / 매년 불어권 선교사들을 위한 단체인 FMEF의 후원을 받아 여름 리트릿을 개최.

Klinik Sonnenhalde

Samuel Pfeifer, Medical Director
4125 Riehen (by Basel), Switzerland
Tel: 41 61 641 1313
E-mail: 100430.442@compuserve.com
크리스천 정신요법 병원과 외래환자 상담.

스페인

Grupo de Asesoramiento Interprofesional

Robert Biddulf, Contact
Enrique Larreta 9, Bajo
28036 Madrid, Spain
E-mail: 100422.3357@compuserve.com

(영어와 스페인어를 하는) 상담원, 심리학자, 그리고 두명의 정신과의사를 포함하는 크리스천 정신 건강 그룹.

Member Care Group

Apdo. 109
29620 Torremolinos
Malaga, Spain
Tel/Fax: 34 52 382233
E-mail: 73633.662@compuserve.com
회원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북아프리카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 세미나, 간단한 상담, 리트릿, 사역지 방문을 제공한다.

영국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Easneye, Ware
Herts. SG12 8LX, England
Tel: 44 1920 461243 Fax: 44 1920 462997
선교사들을 위한 좋은 성경학교 매년 크리스천 사역자들을 위한 리트릿과 해외 사역자들을 위한 2주 준비과정을 갖고 있다.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173 A Workingham Rd.
Reading, Berkshire. RG6 1LT, England
Tel: 44 1734 662207 Fax: 44 1734 269635
두개의 상담 과정 개설 / 크리스천 상담 훈련과정 승인 / 크리스천 상담을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영국 기관과 교회 목록을 가지고 있음.

Care for Mission

Michael and Elizabeth Jones, Directors
Ellem Lodge, Duns TD11 3SG
Berwickshire, Scotland
Tel: 44 1361 890677 Fax: 44 1361 890329
E-mail: 100633.2065@compuserve.com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와 직무상 평가, 보고, 건강 자문과 면역, 예방주사 서비스를 포함한 입원 또는 외래환자 (의료) 서비스 / 후보자들 심리적 의학적 평가 / 대리 자문, 교육 세미나와 선교사들 상담.

Children of Missionaries

Education and Training (COMET)
Marion Knell, Chairperson

c/o P.O. Box 51
Loughborough, Leics. LE11 OZQ, England
Tel: 44 1509 890268

선교사 자녀 문제를 연구하며 EMA 회원 사회 가운데 선교사 자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Cornerstone

London, England
Tel: 44 181 424 8230

전문적으로 훈련된 크리스천들간의 네트워크. 대도시 런던 지역에서 심리요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CWR, Waverley Abbey House

Waverley Lane
Farnham, Surrey GU9 8BR, England
Tel: 44 1252 783695 Fax: 44 1252 783657

상담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의 훈련과정. 예를 들면, 음식 장애, 의기소침, 성적 남용과 결혼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 것. 또한 책, 테이프, 그 밖의 상담과 크리스천 삶에 연관된 전문적인 자료 제공.

EQUIP

Tony Horsfall, Director
Bawtry Hall
Bawtry, Doncaster DN10 6JH, England
Tel: 44 1302 710020 Fax: 44 1302 710027
E-mail: 101325.516@compuserve.com

사역을 위해 준비된 크리스천에 대한 세미나와 주말 워크샵. 선교사들 재파송 지원, 풍성한 결혼생활, 선교기간 중 육아,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원, 타문화권 사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

InterChange

Joy Lankester, Coordinator
c/o InterHealth (아래 주소를 보라)

성인 직업의 전문성 안내, 해외 근로자 직업 자문, 가족들을 위한 선연구과제 안내.

InterHealth

Ted Lankester, Director
Partnership House
157 Waterloo Road
London SE1 8US, England
Tel: 44 171 902 9000 Fax: 44 171 928 0927
E-mail: 100636.1271@compuserve.com

여행 전 건강 심사, 여행시 건강 자문 / 서류자료들, 번역 처치, 건강 준비물들, 귀국시 의료검사, 심리적 평가, 재파송 보고, 장단기 상담, 조언과 자문 서비스, 워크샵, 정신의학적 돌봄/지원.

Member Care Associates

Kelly and Michele O'Donnell, Coordinators
P.O. Box 4
High Wycombe, Bucks. HP14 3YX, England
Tel: 44 1494 484391 Fax: 44 1494 485917
E-mail: 102172.170@compuserve.com

보고, 팀 구성, 심리적 평가, 세미나, 사례 자문, 구성원 돌봄 프로그램 자문, 문서로 된 자원을 포함한 상담.

Mission Encouragement

Janice Rowland, Director
P.O. Box 4034
Worthing, West Sussex BN14 7FS, England
Tel/Fax: 44 1903 211 50
E-mail: 106342.424@compuserve.com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지원 분야.

MK Oasis

Anthony and Joan Sinclair
28 Salisbury Rd.
Mosley, Birmingham B13 8JT, England
Tel: 44 121 449 7496 Fax: 44 121 472 0425
E-mail: Anthony@mkoasis.demon.co.uk

리트릿에 의한 선교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원. 전화와 개인적 상담, 가족 세미나 그리고 자료 검색.

Network of Christians in Psychology

Michael Wang, Chairman
c/o University of Hull
Department of Psychology
Hull HU6 7RX, England
Tel: 44 482 465 933 Fax: 44 482 465 599
영국 내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

Readjustment Network

David Williams, Coordinator
Bawtry Hall
Bawtry, Doncaster DN10 6JH, England
Tel: 44 1302 710020 Fax: 44 1302 710027

영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과 이미 재파송 과정을 겪은 노련한 선교사들을 연결.

Wellsprings

Marjorie Salmon, Coordinator

Bawtry Hall

Bawtry, Doncaster DN10 6JH, England

Tel: 44 1302 710020 Fax: 44 1302 710027

재충전과 재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해외에 있는 개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EQUIP에 의해 체계화된 진행과정과 연결될 기회가 주어짐. 상주하는 간호사가 적절한 조정과 서비스를 제공함

UK Notes

1.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재 오리엔테이션 코스" (상세한 자료는 The Warden, Leasow House, Crowther Hall, Selly Oak, Birmingham B29 69T, England으로).
2. 해외에서 돌아온 크리스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산파들을 위한 "거주하는 재충전 코스"(런던 Oak Hill College에 개설됨. 상세한 자료는 Overseas Support Secretary,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157 Waterloo Road, London SE1 8XN, England으로).
3. The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는 매년 인사 담당자들을 위해 두 개의 집회를 후원하고 있다.
4. *Vision Magazine*. 보통 전원과 풍경으로 둘러싸인 쉽고 재기를 위해 영국에서 갈만한 좋은 곳들을 수록함.

오스트리아

Barnabas Zentrum

Steve and Rita Williams, Directors

Stall 35

A-9832 Stall/Moelltal, Austria

Tel/Fax: 43 4823 315

E-mail: 100611.1632@compuserve.com

알프스 남쪽에 위치해 있는, 휴가중인 크리스천 일꾼들을 위한 리트릿 상담 프로그램. 소모임으로 독신과 부부를 위한 강한 상담 프로그램이 10일 동안 열린다. 영어로 진행되며, 앞으로 독어로도 할 계획이다.

Schloss Mittersill

Judith Davids, Contact

5730 Mittersill, Austria

Tel: 43 6562 4523 Fax: 43 6562 4523 50

E-mail: 72376.3715@compuserve.com

영적 관리, 준비된 리트릿에서 개인/부부 상담. 독신 상담은 위기상담과 단기 거주 상담 과정 혹은 수양회의 한 부분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키프로스

Member Care Team

Box 7177

Lykavitos, 1642 Nicosia, Cyprus

Tel: 357 2 368392 Fax: 357 2 368596

E-mail: 75402.3041@compuserve.com

회원 돌봄의 조정과 중동 지역에 보냄을 돕고 있는 중개기관. 타문화적인 삶과 중동지역 근무와 관련된 문서를 다량 소장하고 있다.

Oasis

David and Joyce Huggett, Directors

P.O.Box 80

Polis Chrysoc, Cyprus

Tel: 357 6 322241

E-mail: 100610.427@compuserve.com

개인, 부부, 작은 그룹을 위한 리트릿의 안내를 제공하는 작은 리트릿 센터.

프랑스

Communaute des Diaconesses de Reuilly

10, rue Porte de Buc

78000 Versailles, France

자체 지도 리트릿과 경배 예배를 제공하는 복음적 공동체.

Famille et Jeunesse en Action

Claude and Ginette Gaasch, Coordinators

4, rue des Pins

68610 Lautenbach, France

Tel: 33 03 89 740656 Fax: 33 03 89 740657

이 지역에서 가족의 삶과 가족 문제들, 결혼 준비, 가족 캠프, 그리고 풍성한 결혼생활의 도움을 제공함.

International Family/Church Growth Institute

Walt and Patricia Stuart, Directors

13b, rue Principale

68610 Lautenbach, France

Tel/Fax: 33 03 89 763159

E-mail: 102234.2563@compuserve.com

단기 거주 상담과 외래환자 상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상담원 훈련, 가족 캠프, 재파송과 다른 세미나들. 불

어, 영어, 독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 그룹을 가지고 있는 유럽 총본부이다.

오스트리아(Barnabas Zentrum을 보라)

프랑스(Famille et Jeunesse en Action을 보라)

독일

Jay Adams and Libby Stephens
Black Forest Academy
Postfach 1109
79396 Kandern, Germany
Tel: 49 7626 91610
E-mail: 100273.1530@compuserve.com

헝가리

Ursula Spooner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Hata ut. 68, 2049 Diosd
Budapest, Hungary
Tel/Fax: 36 23 381986
E-mail: 102452.2132@compuserve.com

Le Rucher, Youth With A Mission

Erik Spruyt, Director
2067 Route de Tutegnay
01170 Cessy, France
Tel: 33 04 50 283379 Fax: 33 04 50 283385
E-mail: 100412.2520@compuserve.com

보고, 상담원 훈련, 회원 돌봄 세미나들, 쉼과 재기를 위한 몇몇 숙소(제네바 근처).

Philippe Thomas

156 rue de la Zorn
57820 Lutzelbourg (by Strasbourg), France
Tel: 33 03 87 253634 Fax: 33 03 87 253861

충격과 위기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불어와 영어로 하는 일반적 상담. 또한 두 사람까지 5-9월의 단기 거주 상담을 제공.

헝가리

(프랑스의 IFCI 목록을 보라)

SHARE

David Brooks, Director
2049 Diosd
Ifjusag u. 11, Hungary

Tel: 36 23 381 951 Fax: 36 23 381 553

E-mail: 100263.723@compuserve.com

교육 지원, 자문, 그리고 유럽과 CIS에서 선교사 가족을 위한 지원. 교육적 문제를 다루는 컨퍼런스 와 워크샵을 후원. 매년 유럽과 CIS에서의 교육적 선택의 평론 발행. 부다페스트의 지역 매니저는 Nancy Elwood. 또한 루마니아에 지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Jack Thompson
Str. Th. Sperantia 96, Sector 3
Bucharest, Rumania
Tel/Fax : 40 1 684 6010
E-mail : 74073.460@compuserve.com

북아메리카

미국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 Missions Office

Philip Renicks, Director
P.O. Box 35097
Colorado Springs, Colorado 80935, USA
Tel: 719 594 4612 Fax: 719 531 0631
E-mail: 102256.2544@compuserve.com

선교사 자녀 학교와 국제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 돌보는 이들을 위한 자료. 파송전 훈련, 세미나와 지역 수양회, 보충, 그리고 자문 서비스를 포함 / 교생 실습 후원.

ACMC

P.O. Box ACMC
Wheaton, Illinois 60189, USA
Tel: 312 260 1660

선교사역을 하는 교회에 문서 및 기타 자료 제공.

Barnabas International

Lareau Lindquist, Director
P.O. Box 11211
Rockford, Illinois 61126, USA
Tel: 815 395 1335 Fax: 815 395 1385
E-mail: 75453.2463@compuserve.com

설교, 목양, 임상, 상담을 위한 현장 방문. 월간 소식지 "Encouragement" 무료 배포, 풍성한 결혼생활 세미나. 그리고 매년 Waxhaw, North Carolina에서 있는 세미나 "Pastors to Missionaries" 후원.

Christian Association of Psych. Studies

Randolf Sanders, Director
P.O. Box 310400
New Braunfels, Texas 78131, USA
Tel: 210 629 CAPS Fax: 210 629 2342

주로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들에서 크리스천 상담원과 심리학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 제공.

Christian Recovery International

Dale Ryan, Director
P.O. Box 11095
Whittier, California 90603, USA
Tel: 310 697 6201 Fax: 310 694 6930

중독, 남용, 그리고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지와 자료들.

Crisis Consulting International

Bob Klamser, Director
9452 Telephone Road, Suite 223
Ventura, California 93004, USA
Tel: 805 647 4329 Fax: 805 647 1630
E-mail: crisis.consulting.cci@iccs.sil.org

테러분자들의 위협과 이와 유사한 위기에 대처하는 선교 파송기관을 훈련하고 지원.

Global Nomads

Norma McCraig, Director
P.O. Box 9584
Washington, DC, USA
Tel: 703 993 2975
E-mail: info@gni.org

Washington, DC에 근거를 둔 국제적이고 세속적인 기관. 제3의 문화 아이들의 필요와 적응 문제들에 초점을 둬.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의 East Coast에 있는 대학에서 캠퍼스 그룹을 조직함.

Heartstream Resources

Larry and Lois Dodds, Directors
101 Herman Lee Circle
Liverpool, Pennsylvania 17045, USA
Tel: 717 444 2374 Fax: 717 444 2574
E-mail: 72261.2634@compuserve.com

심리적이고 의학적인 자문 훈련 세미나와 상담. 현재 집중적인 돌봄과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치료하기 위한 거주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Interaction Ministries

David Pollock, Director
P.O. Box 158
Houghton, New York 14744, USA
Tel/Fax: 716 567 4598
E-mail: 75662.2070@compuserve.com

세미나, 자문, 그리고 선교사 자녀와 가족을 다루는 재입국 프로그램.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훌륭한 참고 자료들.

다음과 같은 지부 및 담당자가 있다.

David and Mary Ann Brooks - 헝가리
Polly Chan - 홍콩, 대만, 싱가포르
Judith Gjoen - 북유럽 나라들
Anthony and Joan Sinclair - 영국
Gyoung Ae Ryoo - 한국
Libby Stephens, Stephanie Hock - 독일

International Affiliates of the APA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oan Buchanan, Director
7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 USA

APA와 제휴되어 있는 전세계에 걸친 3,000명의 심리학자 주소록 출판. 비록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용 가능한 참고 자료.

International Assoc. of Christian Counselors

P.O. Box 739
Forest, Virginia 24551, USA
Tel: 800 526 8673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가 제휴한 새로운 기관. 함께 모여 국가적인 기독교 상담협의회의 발전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nk Care Center

Brent Lindquist, Director
1734 West Shaw Avenue
Fresno, California 93711, USA
Tel: 209 439 5920 Fax: 209 439 2214
E-mail: 75027.2265@compuserve.com

훈련, 상담, 파송전 준비, 회복, 심리 평가, 그리고 재입국 프로그램. 주거 프로그램.

Makahiki Ministries

P.O. Box 415

Mariposa, California 95388, USA

Tel: 209 966 2988

귀국자, 쉬려는 사람, 재기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미국에 있는 봉사 네트워크.

Marble Retreat

Louis and Melissa McBurney, Directors

139 Bannockburn

Marble, Colorado 81623, USA

Tel: 970 963 2499 or 888 21MARBLE

Fax: 970 963 0217

E-mail: 72040.1367@compuserve.com

성직자(목사, 선교사, 크리스천 사역자들)를 위한 위기 상담 2주 학기.

Mental Health and Missions Conference

John Powell, Coordinator

Counseling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chigan 48823, USA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비공식 집회. 인디애나 주의 작은 호텔에서 매 11월에 모임. 서로 연락하고, 교체하고, 회원 돌봄에 대한 문서를 나눈다.

Missionary Care International

Len Cerny, Director

6291 Hilltop Place

Yorba Linda, California 92686, USA

Tel: 714 324 2212 Fax: 714 970 0819

E-mail: 74361.354@compuserve.com

상담, 심리 평가, 세미나, 사역현장과 e-mail 자문. 선교전 문가들 동원과 정신 건강 훈련.

Missionary Care Services

Doug Feil and Lanell Schilling, Directors

141 West Davies

Littleton, Colorado 80120, USA

Tel: 303 730 1717 Fax: 303 717 1531

E-mail: jfeil@ares.csd.net

상담, 평가, 그리고 자문.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Paul Nelson, Director

P.O. Box 50110

Colorado Springs, Colorado 80949, USA

Tel: 800 896 3710 Fax: 719 594 4682

E-mail: mintern@aol.com

파송전 개인과 가족의 준비. 위기 보고와 재입국, 언어습득 훈련. 선교사 돌봄과 발전에 대한 워크샵. 회원을 돌보는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례 자문.

MKS in Recovery

Sharon Koon, Director

P.O. Box 51

Reynoldsburg, Ohio 43068, USA

Tel/Fax: 614 861 8512

소식지, 리트릿,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를 가진 선교사 자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Mu Kappa

Jim and Ruth Lauer, Directors

1032 Twin Falls

De Soto, Texas 75115, USA

Tel: 214 230 1710

선교사 자녀들이 미국에서 대학과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대학 협동단체. 재입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문한다.

Narramore Christian Foundation

250 West Colorado Blvd., Suite 200

Arcadia, California 91007, USA

Tel: 818 821 8400 Fax: 818 821 8409

E-mail: 102132.3067@compuserve.com

매년 두 개의 선교사 자녀 재입국 세미나를 운영 / 몇 개의 회원 돌봄 프로젝트를 포함.

Operation Impact

Azusa Pacific University

Grace Barnes, Director

P.O. Box 7000

Azusa, California 91702, USA

Tel: 818 815 3848 Fax: 818 815 3868

E-mail: gbarnes@apu.edu

지도자 훈련에 관한 전세계의 다른 장소들에서 제공되는 과정과 석사급 프로그램. 선교사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고안됨.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Gerald Anderson, Director

490 Prospect Street

Newhaven, Connecticut 06511, USA

Tel: 203 624 6672 Fax: 203 865 2857

타문화권의 사역, 조사, 출판, 참고도서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되어 있음.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OSAC)

State Annex 10, 8th Floor
Washington, DC 20522, USA

Tel: 202 663 0533 Fax: 202 663 0868

해외에 살 때에 안전예방에 관한 브로셔와 자료 유괴 예방, 인질 상황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가족 보호와 해외 사업을 포함함.

Psychotherapy and Consultation Services

Fron White, Director
1272 Reading Court
Wheaton, Illinois 60187, USA
Tel: 708 668 6561

중요한 선교 경험을 지닌 여섯명의 치료 전문가. 상담, 자문, 그리고 사역현장과 미국 내에서 세미나를 제공함.

Reconciliation Ministries

Esly Carvalho, Director
P.O. Box 26202
Colorado Springs, Colorado 80936, USA
Tel: 719 573 4670 Fax: 719 637 3481
E-mail: eslyregina@aol.com

위기 보고, 사역현장 돌봄(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서비스)

"Renewal" Houses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쉬고 재충전하기에 유용한 많은 장소 중에서 몇 개를 여기에 소개한다.

Break-A-Way (a division of Medical Ministry International), c/o Loe and Mary Jo Ferrante
Downing House in Denver, Colorado
Dave and Kim Butts에 의해 운영되는
Terre Haute in Indiana
Wears Valley Retreat, Knoxville, Tennessee
Cleft Rock in Kentucky, c/o Bob and Eddie Fields

Servants' Missionary Service

Ron and Sue Faircloth, Directors
P.O. Box 3488
Columbia, South Carolina 29230, USA

Tel: 803 754 2929 Fax: 803 786 8903

E-mail: 70413.2445@compuserve.com

선교사들을 위한 출판/소식지 발송.

Third Culture Family Services

Elsie Purnell, Director
1605 Elizabeth Street
Pasadena, California 91104, USA
Tel: 818 794 9406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성장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지원 그룹 운영. 또한 선교사 자녀들과 관련된 관심(예를 들면, 교육, 재파송 그리고 파송전 준비)에 대한 조언 제공.

Training and Resource Center

Phil Elkins, Director
3800 Canon Blvd.
Altradena, California 91001, USA
Tel: 818 791 2000 Fax: 818 787 7906

자문, 파송전 훈련, 조사.

Tuscarora Resource Center

Mount Bethel Christian Ministries
Lewis Judy, Director
870 Sunrise Blvd.
Mount Bethel, Pennsylvania 18343, USA
Tel: 717 897 5115 Fax: 717 897 0144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과 평가 서비스 주거지 돌봄을 위한 주택 제공.

North America Notes

주요 복음선교협회를 포함한 추가 참고 자료

1. IFMA
John Orme, Director
P.O. Box 3398
Wheaton, Illinois 60189, USA
Tel: 708 682 9270 Fax: 708 682 9278
E-mail: ifma@aol.com
2. EFMA
Paul McKaughan, Director
1023 15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USA
Tel: 202 789 1500 Fax: 202 842 0392
E-mail: 72143.1167@compuserve.com
3.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Missions Commission
Bill Taylor, Director

4807 Palisade Drive
Austin, Texas 78731, USA
Tel: 512 467 8431 Fax: 512 467 2849
E-mail: 74742.133@compuserve.com

상담과 가족 생활의 전문 크리스천 기관들

1. Focus on the Family
2. Minirth Meier Centers
3.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4. Fuller School of Psychology
5. 더불어 CAPS와 IACC 목록표를 보라

회원 돌봄과 관계된 정보와 필요를 나누는 E-mail 포럼들

1. Network of Associates for the Health of Expatriates (NOAHE)
c/o Dr. Rick Johnson
E-mail: drrickjohn@xc.org
2. Pastors to Missionaries Newsletter
c/o Barnabas
E-mail: 75453.2463@compuserve.com

캐나다

Amicus Ministries International

Claude Loney, Director
P.O. Box 1503
Peterborough, Ontario K9J 7H7, Canada
Tel: 705 742 5195 Fax: 705 742 1208
E-mail: 75672.173@compuserve.com

돌봐주는 이들(선교사, 목사 그리고 지도자들을 포함)을 위한 리트릿과 상담.

Missionary Health Institute

Ken Gamble, Director
4000 Leslie Street
North York, Ontario M2K 2R9, Canada
Tel: 416 494 7512 Fax: 416 492 3740

외래환자 상담, 질병과 열대 질병 자문 / 치료, 파송 전과 귀국 후 의학적 심리적 검사 / 건강에 관한 해외 세미나, 갈등, 스트레스 / 재입국 세미나 / 사역지에서의 위기 중재.

Missionary Internship

Claude Loney, Director
P.O. Box 1503
Peterborough, Ontario K9J 7H7, Canada
Tel: 705 742 1047 Fax: 705 742 1208
E-mail: 75672.1733@compuserve.com

타문화적인 서비스를 위한 훈련, 파송 전 오리엔테이션, 언어습득 프로그램, 선교사 가족 오리엔테이션 / 위기 보고와 재입국 프로그램을 포함.

라틴 아메리카

과테말라

COMIBAM International

Rudy Girón, Director
Apartado Postal 27-1, CP01907
Guatemala City, Guatemala
Tel: 502 2 500769 Fax: 502 2 300941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선교사 연합과 참고 자료들.

아르헨티나

Centro de Capacitacion Misionera Transcultural

Marcelo Abel, Director
Lima 933
Bo. General Paz
5000 Córdoba, Argentina

타문화 선교를 위한 지역적 선교훈련 센터.

에쿠아도르

EIRENE

Carlos Pinto, Coordinator
c/o HCJB
Casilla 17-17-691
Quito, Ecuador
Tel: 59 32 43 512
E-mail: cpinto@hcjb.org.ec

목사와 가족 상담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 협회.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말하는 크리스천 상담원을 위한 참고 자료.

읽을거리

Gardner, R., & Gardner, L. (1992). Training and using member care workers. In K. O'Donnell (편집), *Missionary care :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315-331).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Johnston, L. (1988). Building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health specialists and mission agencies. In K. O'Donnell (편집),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pp. 449-457).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은 YWAM과 영국에 본부를 둔 초단체적인 목양팀인 목양 협회(Member Care Associates)에 속하여 일하는 심리학자이다. 아내인 미셸(Michele)과 함께 윌리엄 케리 출판사(William Carey Library)에서 출판한 *Helping Missionaries Grow* (1988)와 *Missionary Care* (1992)를 편집했다. 오도넬 부부는 팀 구성, 상담, 가족 생활, 목양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의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그는 프론티어 선교회의 목양 분야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5부

일본과 도전

선교와 도전: 결론과 적용, 후속 조사 연구

윌리엄 테일러

최근에 접한 삶의 이야기

지난 3년간 선교지에서의 삶은 상처투성이였다. 우리의 외적 환경은 시작부터 어려웠는데, 사실은 짐통 같은 더위와, 질식할 것 같은 습기이다, 물은 부족하고, 전기는 없고, 그야말로 생존이 문제였다.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불신자나 무슬림으로부터 고난이 올 때 그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것도 지도자로부터 왔다. 우리는 단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셨다. 우리는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악을 보았다. 우리는 영성 시험에 비참하게도 실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씨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상하게 하사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

던 것이다. 맷돌 속에서 갈리는 3년간이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임기 동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깨뜨리셨지만, 우리를 가르치사 장기적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초에 우리 임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저녁을 보냈던 젊은 선교사 부부인 나이젤과 티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은 남아프리카의 단기선교 프로젝트에서 만나서, 고국에서 결혼하여 그 나라에 장기로 섬기기 위해 되돌아갔다. 그들은 도시 중심의 첫 사역에서 2년도 채 못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오지로 이끄실 줄은 차마 몰랐었다. 그곳은 이전에 저항적이었던 종족 그룹을 성령께서 강타하고 계신 지역이었다. 본래 그들을 팀으로 모집했던 부부는 심각한 결혼 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 버렸다. 그러나 나이젤과 티나는 살아 남았으며, 심오한 교훈을 배웠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지금은 그들의 본국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마지막 장을 쓰는 몇주간 사이에 나와 아주 가까이 접촉을 한 11가정 중 하나일 뿐이다. 장기 사역을 계획 중에 있는 네 부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가진 세 부부, 20년간의 사역을 한 후 또 다른 주요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 가정, 그리고 32년간의 아시아에서의 타문화 사역이 끝날 지경에 이르러 이제 그녀의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는 50대 후반의 재능 있는 선교학자와 심각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특권이였다. 나는 사람들이 장기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일찍 혹은 예기치 않게 떠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들과 편지들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또한 탈락 설문지와 그 범주에 관한 피터 브릴리(6장)의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7장)의 분석도 그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다시 읽어보았다.

이 책을 끝내려는 즈음에

우리는 풍부한 정보와 통계, 관점들, 그리고 전세계의 타문화 사업에 관계하거나 헌신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용이 풍부한 이 책의 끝에 이르렀다. 우리는 14개국의 553명의 선교기관 지도자들의 관점은 물론 수많은 개인적인 사례연구들을 통하여 이해할 만한 탈락과 바람직하지 않은 탈락에 대한 숫자들과, 통계와 구체적인 이유들을 얻었다.

우리의 연구조사는 맘에 걸리는 숫자들과 백분율, 유형, 그리고 결론들을 나타내 준다. 몇몇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며 분명히 인간의 잠재력과 재정적인 자원의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지금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으며, 자연히 거기에는 희생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파송 전 선발과정이 부적절한 결과였으며(교회와 선교기관 양쪽 모두의 잘못), 어떤 상처들은 자초한 것이며, 어떤 때는 우리 복음주의 단체의 체제가 파괴적이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도 있다. 너무나 많은 선교부들이, 나가지 말았어야 할 선교사들을, 혹은 동료나 현지교회의 간증에 근거해 볼 때 현지를 떠나야만 할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치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모른다. 교회 지도자들, 학교와 훈련원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단체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한 진지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탈락의 원인들을 밝혀내어 문제를 줄이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선교부와 같은 서구 선교부들은 솔직함과 문제의 파악과 해결, 그리고 기꺼이(대부분의 경우) 변화하고자 하는 태도에 높은 가치를 둔다.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선교부는 “체면”에 높은 가치를 두며, 직접적인 질문과 문제 해결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문제들과 해답들은 당황스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선교부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이해해 주어야 하는 문화적인 기준이 있다. 또 다른 문화적인 차이의 예는 세대별 현실과 관계된 것이다. 현존하는 세 종류의 세대에 관한 호주인의 분석을 마치 우리가 나머지 국가에도 똑같이 강요하는 것 같다고 일찍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확실히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선교 파송국가는 자기 문화에서 파악해야 할 세대적인 요소가 있으며 모든 경우에 이러한 차이는 선교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호주나 북미에서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장을 읽는 독자는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문화적인 형성과 경험으로부터 이 글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나의 관찰과 제안들에 대해 독자 나름대로 상황화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주들에게

우리는 주주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주된 관심을 갖거나 투자("주식")를 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우리 선교사 운동의 주주들은 다음의 7종류의 개인들과 주체들을 포함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도전한다. 이들 주요 주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 선교사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교사들.
- ◆ 교회 지도자 - 목사, 선교 목사, 선교 위원회.
- ◆ 선교 동원가.
- ◆ 선교훈련가, 선교훈련원, 훈련 프로그램.
- ◆ 선교단체 혹은 파송 주체.
- ◆ 현지교회 - 그들이 어디 존재하든지 간에.
- ◆ 목양 책임자 - 목회자들과 전문적인 상담가들.

당신이 이 마지막 장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주주들은 다음 네 가지 도표를 사용하기 바란다.

도표 1: 불가피한, 그리고 방지 가능한 탈락의 주된 이유들을 제시하는 브릴리의 주요 표들(99-101페이지).

도표 2: 구체적인 국가별 탈락율과 기타 의미 있는 그래프들을 보여 주는 블뢰헤르와 루이스의 주요 표들(128-129페이지).

도표 3: 탈락 요인들의 범주와 자세한 목록을 제시한 설문(345-351페이지).

도표 4: 도노반과 마이어스의 세대간의 도표(61페이지).

당신이 이 장을 읽을 때 가끔씩 이러한 네가지 의미 있는 탈락에 관한 관점들과 함께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다루는 부분을 찾아가 보라. 하나님께서 도우사 당신의 탈락에 대한 이해가 자라고 그 해결을 위한 당신의 역할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러한 범주에 따라 당신 자신과 교회, 당신의 동원 역할, 훈련 과제, 선교 지도자의 과제, 현지교회의 도전을 발견하라. 이러한 성찰을 통해 당신은 어떤 통찰력을 얻는가?

1. 선교사 자신

과거의 선교사

내가 과거의 선교사에 대해 생각할 때 내 마음은 17년 전 라틴 아메리카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선교부와 그 나라에 있는 다른 그룹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많은 동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 그들은 쫓겨난 자들이었나? 혹은 소진된 자, 중도포기자, 아니면 결코 나가서는 안되었던 자들이었나? 현지의 상황이 처음의 기대와 얼마나 가까이 맞아들어갔는가? 그들을 위해 어떤 질의 목양이 제공되었나? 이상적이 못되는 환경에서 현지를 떠나간 후에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후관리가 제공되었나?

나는 전직 선교사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한권 구해 읽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가? 당신의 선교사 동료들이 이것을 읽고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상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왜 활발한 선교지 사역을 떠났는가? 나는 왜 17년간의 타문화 사역을 한 후 내 "여권의 나라"에서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 남미를 떠났는가? 누가 진정으로 기대보다 빨리 떠나게 된 이유들을 알거나 이해할까? 혹은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용납되는 이유들만을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가?

선교지를 떠나 본국으로 되돌아온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깊이 상처를 받았고, 현지 지도자와 선교부 지도자, 동료들, 배우자, 자기 자신, 파송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떠났는데, 기쁘게 떠났다. 이전의 동료 한 사람이 그의 솔직한 말로 나를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내 생애 중 가장 행복한 날은 내가 그 비행기

에 올라타고 고국으로 날아왔을 때였고, 나는 그 나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았지!” 나 역시도 그 가 떠났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타문화권에서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책이 우리들의 삶을 재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어쩌면 깨어진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확신컨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선교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당신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동행하며, 여전히 왕국을 위하여 유용하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계획과 미래를 위해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향력으로 전세계를 위한 동원가로서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경험을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고통스런 현지 경험을 숨기지 말고 감정을 덮어두지 말라!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것을 직면하라. 당신은 은사가 있는 상담가나 영적 지도자로부터 소중한 도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선교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과 당신의 이전 선교부를 위하여 당신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에게 알려 줄 수 없겠는가?

현재의 선교사

나는 현재의 선교사들이 이 책을 읽고, 불가피한 혹은 방지가능한 탈락의 원인들을 평가하고, 그런 후에 질문을 하기 바란다. 나는 여기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선교사인가? 왜 그런가? 이 장소에서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든지 나로 하여금 장기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자신에 대해 정직하라. 만약 결혼했다면 이 문제를 당신 배우자와 함께 풀어 보라. 어떤 통찰력을 얻는가? 당신은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재능 있는 동료들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격려는 이 사람들을 도와서 그 고통과 어둠, 그리고 사막을 통과해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필요로 한다.

여기 좀 더 진지한 질문이 있다. 당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단순히 거기 있지 말아야 하는 사람인데 타문화 사역을 하느라 거기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이 이 타문화 상황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당신에게나 당신 가족, 동료들, 선교부, 사역, 그리고 현지교회에게 최선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혼돈된 동기나 허술한 선별과정을 통해서 선교지 사역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 모금을 할 수 있고, 물론 선교사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떠난다. 그리고는 너무 오랫동안 머무른다. 어떤 사람들은 본국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방편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선교 사역에 맞는 성격, 특징, 은사, 혹은 기본 능력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역기능이 선교사가 됨으로써 가리워진다. 선교부나 파송교회가 이들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무리짓고 그들의 모국 상황으로 되돌아가도록 지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 세대 선교사

이 장을 구상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우주적인 목적에 헌신되어 있고, 굉장한 재능이 있으며 장기 타문화 선교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 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중의 한사람이 내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당신이 이 탈락 연구로부터 배운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미래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아주 풍성한 대화를 끌어내었으며, 나는 다시금 우리 연구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세대적인 다이어그램과 탈락의 범주에 되돌

아셨다. 나는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평가를 받으며 행했던 출발 전 사역 경험의 성격에 대해 질문을 했다. 생활과 영적 은사의 최소한의 시험만을 거친 부부나 개인은 선교나 다른 어떤 직업적인 사역에 있어서나 실패의 위험이 크다. 교회와 선교부가 철저히 평가된 장래 선교사들의 사역을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 사역이란 단순히 어린이 주일학교 반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나는 우리 앞에 있는 세대적인 쟁점으로 돌아와 장래 선교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것의 적용과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 모든 선교사 파송국가에 있는 하나의 현상인 선교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여기 약간 강하고, 현실적인 치료법에 해당하는 말을 하겠다. 우주적인 사역에 있어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물론이다! 결정을 하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함께 일할 올바른 "팀"과 동료들을 찾는 것이 쉽겠는가? 결코 아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당신을 선교로 내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정적인 흥분을 조심하라. 당신은 그저 선교를 위해 견실한 영적, 개인적 "강인함"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것을 끈질기게 해내는 능력이 자라야 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은 기존하는 체제 안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바로 그러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계획할 때조차 그럴 것이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외면당했으며,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는 신앙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은 찬성하지만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참여하는 지역 신자들의 모임이 어떤 종류이든 정말 상관치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성경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의 성경적 명령을 회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은 기준에 영합하는 교회로 인도하지 마시기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도전하고, 당신에게 거룩함과 예수께 대한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 지역 공동체로부터 지구상의 먼 구석까지 전 세계를 위한 열정을 지닌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당신은 당신의 영적 고향/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 거기서 당신의 기도 후원은 뿌리가 내린다.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선교 사회의 언어에 의해 솔직히 마음을 닫는다. 사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실재를 나타내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 보라. "직업적 선교" 혹은 "평생 선교"와 같은 용어가 불편한가?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5년짜리 고리들을 생각하라. 당신은 한 종족이나 도시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되며 믿음의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 왕에게 적어도 당신 인생의 고리 두개 정도를 혹은 어쩌면 좀 더 많은 고리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가?

신학교 졸업 후에 러시아를 향해 떠나기 전날 세쓰와 리타는 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답은 지금 즉시 다음과 같은 헌신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1. 당신 은사를 활용하고 시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교회에 의미 있게 참여하라.
2. 성품의 문제, 영성, 사역 기술, 그리고 생활과 사역을 위한 지식에 초점을 맞춘 올바른 종류의 훈련을 받으라.
3. 당신들이 러시아에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종류의 삶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4.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당신의 결론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라.
5. 당신의 교회파송 베이스를 개발하고, 당신 교회와 동역하며 가시적인 현지 팀 전략, 감독, 목양을 제공해 줄 현지 체제/선교부를 찾기로 결단하라.
6. 장기 언어 습득과 문화 적용을 위해 헌신하라.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의 탈락 문제는 실재하지만 때로는 간과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이며 장기적인 전문인 선교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종직업인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일은 약간 쉬워진다. 한 노련한 전문인 선교사는 첫 4년 동안의 높은 탈락율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인들 때문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 ◆ 부적절한 훈련
- ◆ 채워지지 않은,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
- ◆ 두가지 직업과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 ◆ 현지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 문제
- ◆ 책임감의 부족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커다란 외로움과 자기 가치감과 사역에 있어서의 가치감 상실, 그리고 기도와 영적 충전을 위한 시간의 제한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선교지를 떠나게 만든다.

아시아를 고통 가운데 떠났던 한 전문인 선교사 부로부터의 편지를 보라.

저의 지속적인 체중 감소와 원기 부족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 보았지만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가르치는 직업의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남편은 도시의 소음과 혼잡을 견디느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시골 소년이어서 도시는 그를 질리게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저희 성격과 인격, 그리고 온사에 관한 다른 문제들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것은 잘못된 직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막연한 생각들이 그 운동을 감싸고 있다. 의미있는 것은, 가장 최근의 전문인 선교사 세계 대회가 1997년초 호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보다 적절한 훈련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논의되었다.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를 탈락 문제에 연결시킬 때, 토론해야 될 몇가지 주요 질문들과 탈락을 줄일 수 있는 행동 계획들이 떠올랐다.

1. 전문인 선교사들은 누가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가?
2. 그들은 타문화 사역 현장에서 두가지 직업을 통합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파송 전 준비를 거쳤는가?
3. 그들의 직업 활동 계획에 있어 파송 교회의 역할을 무엇인가?
4. 현지에서 목양과 감독, 그리고 선교 전략은 누가 제공하는가?

현재 중동에서 전문인 선교사이자 선교부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한 친한 친구가 그가 있는 세계의 영역 내의 선교사 탈락에 대해 우리와 얘기했을 때 몇가지 의미 깊은 점을 나누었다.

나는 거의 매일 압도당하고 만다. 직업과 사역의 긴장이 상당하다. 거기에다가 지역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이 더해져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상당한 사역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보내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신학 석사학위를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계시 역사의 성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 수는 있어야 한다. 그들은 성경과 무슬림 세계관을 이해하는, 선교지에서 이루어진 무슬림을 위한 변증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지역교회: 목양팀, 선교위원회, 선교 목사

우리가 1994년 탈락 연구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함께 얘기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제로 탈락 문제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 선교사 탈락 문제를 이해하고 추적하게 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 문제의 이모저모를 충분히 인식해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 태도는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80명이 넘는 교회 선교 지도자들(미국에서 64명, 가나에서 2명을 포함)이 우리의 탈락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기 선교 중심적인 교회들을 위한 몇가지 주요 질문들이 있다.

1. 당신은 지난 10년에 걸친 당신 교회의 탈락에 대하여 단지 그 숫자와 이름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2. 당신은 무슨 이유로든 선교지를 떠난 “당신의”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파악할 수 있는가?
3. 당신은 지난 10년간 당신의 전직 선교사들이 탈락한 이유들을 파악해 낼 수 있는가?
4. 당신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탈락에 대한 재정적인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는가?
5. 이러한 탈락에 대해 교회는 어떤 종류의 책임이 있는가?
6.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7.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선교사들이 속한 선교부와 목양에 있어 동역을 하고 있는가?
8.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귀국했을 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 전인적 목양의 필요를 채워 주었는가? 그 선교사들은 당신 교회로 돌아왔는가, 혹은 죄의식과 두려움, 수치,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다른 교회에 정착을 했는가?
9. 이전 선교사들과 접촉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10. 당신은 교회로 되돌아 온 선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당신의 지역적인 사역과 타문화 사역, 전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교회와 선교회에 있어 주된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돈을 보내고 기도하는” 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것은 후원을 구하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돈 문제로 접근하며 그들로 하여금 재정적인(그리고 물론 기도도!) 참여를 하라고 도전했음을 말한다. 그 대신에 교회는 후보자들을 검토하여(특히 그들의 훈련 여부와 선교단체에 대해서), 그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들은 그 교회의 후원 선교사 명부에 오르는 것이다. 교회는 돈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가 거의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다. 교회들은 정당하게 전체 선교 운동에 있어 더 큰 참여와 역할,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옛날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 훈련원, 또는 선교회에는 도전이 된다. 지역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 즉 선발과 준비, 파송과 후원, 전략화와 목양을 현지에서나 본국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는 지역교회에 위협이 온다. 이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현지 중심 후원 체제를 제공하지 않고서 재능 있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현명한 교회들은 그들의 선교 프로그램에 있어 전략적인 두가지 주요 동반자 관계를 개발한다. 첫째, 그들은 영성과 성품 훈련, 인간관계와 사역의 기술 개발, 평가되고 책임 있는 섬김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준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교사 중 어떤 사람들은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분야에서와, 타문화와 이슬람 연구, 또는 과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다른 분야에 있어 정규 또는 비정규의 특정한 파송 전 훈련

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그들은 특정 현지에 잘 맞는다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센타나 훈련원의 어떤 훈련에 동역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 과정을 지도한다.

둘째로, 현명한 교회는 선교사와 가족, 또는 팀이 생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 필요한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평판을 가진 경험 있는 현지체제 선교부와 동역한다. 그리고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 교회는 그들을 영접하고, 격려하고, 강건케 하기 위한 영적 공동체로서 거기에 있다. 심하게 상처를 입고 귀국하는 자들에게는 지역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자원을 통해 치유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최선의 미래를 추구하는 부드러운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려는 이중 후원체제를 제공하는데, 현지 베이스에 하나와 지역교회에 다른 하나의 체제를 갖는다.

그래서 탈락을 줄이기 위해 헌신된 모든 교회들에게 몇마디 마지막 말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선교회 세부구조를 당신 스스로 제공하거나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라. 작은 선교부(교회들도 포함)들이 탈락율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라.
2. 조심스런(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닌) 선발, 선별, 준비, 훈련, 파송, 목양 과정을 개발하라. 이러한 영역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라.
3. 선교사들을 위한 당신 자신의 특별한 종류의 목양을 제공하고, 또한 선교회로 하여금 약속한 현지 목양을 책임지도록 하라. 결국, 만약 당신이 상당한 비율의 재정을 공급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4. 성경학교와 신학교들이 효과적인 선교사 훈련이란 면에서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추측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정규 공부 과정과 학위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라. 성품과 관계들, 사역 기술과 선교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에 대해 초점

을 맞추는 준비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라.

여기 선교기관과 지역교회 사이의 동반자 관계에 좋은 본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 특정한 선교회의 비전은 힘든 것으로서 저항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팀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필요와 전략이 둘 다 명백하고, 이 비전은 꽤 많은 수의 재능 있고 헌신된 젊은이들을 끌었다. 그러나 그들 중 너무 많은 수가 파송 전 지역교회에 대해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그들의 자문화권에서 교회개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아주 독립적인 사람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성격과 관계의 문제가 가족과 교회 개척팀을 깨뜨려 버렸다. 제한적인 사역 기술은 어려운 타문화권의 현실이란 바위에 쉽게 좌초되고 만다. 최근에는, 경험이 풍부한 이 선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제한점들을 파악하고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역교회는 그들의 대도시 지역에서 교회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 모임(가정 교회)의 강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지도자들은 이들 그룹의 목자로서 섬기도록 세움을 입었다. 교회의 보다 큰 목양의 필요는 작은 그룹 속으로 떨어지고, 그들 지도자들은 사역의 더 영광스러운 면은 물론 힘든 부분들을 감당해내야 한다. 가정 모임 목자들은 (독신이거나 기혼 부부이거나 간에) 자기네 가정 모임이 배가함에 따라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자들의 코치가 된다. 이 교회가 장래 선교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가정 교회 목자와 코치로 섬기는 과정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성격과 은사들을 평가하고 형성하는 장(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들은 타문화 사역을 위한 결정적인 기초가 된다.

선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는 교회 목사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 창의적 접근 국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성품과 은사에 대한 이러한 시험을 거쳤다면 우리들의 탈락은 현격하게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교

회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단일 문화적인 본국에서 나아가 보다 험한 타문화의 현장에서 교회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들어갔다.

3. 선교 동원가

이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며, 전세계 모든 선교 파송 베이스 주변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열정적이며,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 사업에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킨다. 그들은 세계 선교에 관한 특별한 과정을 개설한다. 그들은 미전도 종족 그룹을 입양하도록 격려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활기찬 교회에서 발견되거나, 세계선교 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나, 소수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강사나 유인물, 그리고 비디오 등 선교를 위한 온갖 종류의 자원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선교대회와 수련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선교 행사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역군들이다!

동원가들은 선교사 탈락을 줄이는 데 있어, 특히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와 종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의 최전선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선교 동원가들을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1. 세계 선교의 참된 대가에 대해 현실적이 되라.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알리지 않고 단순히 광고만 하지 말라. 동원과 동기 유발 이상으로 나아가라.
2. 장기 선교를 위해 살고 사역한 사람들의 성숙함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은 선교에 대한 감정적인 결단에 대해 조심하라.
3. 단기와 장기 선교 사역의 균형에 대해 광고하라. 미전도 종족이 미전도된 주요 이유는 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그들은 어쩌면 선교에 장기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잘 전도될 것이다.
4. 효과적인 장기 사역에 있어 지름길을 제시하지

말라. 그것은 언어 학습을 끝내는 것은 물론 역사와 문화의 공부도 필요하다. 2년 이상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언어보다 더 유용한 도구는 없다.

5. 끝으로, 우주적인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환원주의를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을 단지 전도만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교사 지리를 세계의 한 부분으로 축소하지 말며, 특정 수치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과업을 축소시키지 말고, 교회개혁 사역을 종족 그룹 입양으로 축소시키지 말며, 관계적이고 성육신적인 사역의 도전을 일을 쉽게 만들어 주는 기술공학적인 진보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4. 선교사 훈련 사업:

학교, 준비 프로그램, 공식/비공식적 교육

우리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놀라움 중의 하나는 우리가 훈련과 탈락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려고 할 때 일어났다.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더 낮게 작성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한 기성 파송국가의 반응은 부적절한 훈련을 탈락 원인의 20번째 위치에 놓은 반면, 신생 파송국가에서는 9번째였다. 우리가 신생 파송국 훈련의 위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드러났다. 브라질의 경우, 부적절한 훈련은 첫 번째였고, 가나는 다섯 번째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훈련이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보기 위한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의 분석(제7장)을 검토해 보라.

그 결과는 선교사 훈련자들에게 뒤섞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어쩌서 부적절한 훈련이 그렇게 낮게 순위가 매겨졌는가? 그것은 훈련자들이 일을 잘했다는 것인가 혹은 잘못했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게도 이런 결론을 내렸다. “뭘, 우리는 어쨌거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나 역시도 새로운 통찰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빛을 비추었을 때 “아하!”하고 깨닫기까지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해 갈등을 했다. 특히 공식/비공식적인 성서적, 선교사적 훈련을 위한 기회가 있었을 때 선교사들은 거의 이론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귀국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훈련이 없었거나 소홀히 여겼을 때 그 결과는 명백하게 경고를 준다.

조기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주된 원인들은 성품과 영성, 대인관계상의 갈등 문제이다. 이것은 조사 결과로 볼 때 모든 나라에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파송 전 준비와 훈련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이러한 주된 연약함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책임이 있는가? 만약 훈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회피에 불과하다. “뭐,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라. 혹은 어쩌면 선교기관이 그 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식적인 지식 위주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나의 깊은 확신은 선교사를 훈련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하는 정규, 비정규 학교나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소위 선교사 훈련학교들이 성품 개발과 공동체 관계성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관심밖에 주지 않는 지식의 공장일 뿐이다. 그들은 기술적인 어떤 준비는 시켜 줄지 모르나 그것도 고르지 않다.

나는 학교 체계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정규 신학교육과 선교사 훈련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 세상을 광범위하게 살피며 돌아다닌다. 반대는 선교사들 자신, 지역 파송교회, 선교기관, 그리고 현지 교회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참된 변화를 가져올 위기로 이끌고 있다.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교회들이 공식적인 훈련에 기꺼이 쏟아 붓고자 하는 자원의 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교육 사업을 뒤흔들어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학교의 결실에 대해 불만족하는 선교기관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들의 열매는 경청되지 않고 있으며, 해답은 단순히 기존하는 커리큘럼에 새로운 과정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교부들은 이미 단기의 비정규적인 선교사 준비 과정이라는 독특한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인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미 호주와 북미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탈락 감소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기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해 보겠다.

1. 당신이 준비과정을 제공할 때 반드시 파송교회와 동역하도록 하라. 이것은 교회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종류의 준비를 분별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알아내라.

2. 효과적인 타문화 사역자의 프로필(성품, 기술, 지식에 있어서)을 작성하는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런 후 그러한 종류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가르침과 배움에 기여하는 모든 것)의 종류를 연구하라.

3. 더 많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단순히 과정들을 추가하지 말라. 당신의 커리큘럼 전체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선교사의 프로필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그것을 살펴보기 바란다.

4.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은 깨어진 가정 배경, 부적절한 양육과 성격 형성 경험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은 보다 자상한 가정적 목회 자료와 상담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당신은 이 세가지 교육적인 내용을 어떻게 잘 균형잡고 있는지 평가해 보라.

- ◆ 성품과 기술, 지식의 필요를 채우는 훈련.
- ◆ 공식적, 비공식, 비형식적 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훈련.
- ◆ 교회와 선교기관, 그리고 현지교회의 필요와 바람을 고려하는 훈련.

6. 당신의 훈련이 반드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라.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직 남편들을 향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7. 공식적인 선교사 훈련학교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는 비공식적인 훌륭한 프로그램들과의 사이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개발할 것을 고려하라. 당신의 훈련생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으며 학습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

8. 어떤 종류의 공식 훈련이 현지 자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라. 그것은 선교부와 현지교회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의미한다.

9. 지난 십년간의 당신 졸업생들로부터 그들의 평가와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변화에 대한 제안을 얻기 위해 물어 보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라.

10. 당신 자신의 탈락 기록을 보유하라. 당신의 졸업생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이 훈련받은 그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이유로 타문화 사역을 떠났는가? 그들의 떠남과 그들의 훈련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5. 선교기관 혹은 파송 주체

우리 WEF 탈락 연구는 우선적으로 선교기관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그들은 만나기가 쉬웠고 일반적으로(비록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꺼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또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간단한 조사가 그들 자신의 선교부에 대한 탈락 문제를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거나 충격을 줄 것을 알고 있었다. 1996년 4월에 있었던 우리의 탈락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선교기관을

대표하였다. 그 워크샵의 가치는 그들에게 분명했다. 한 영국 인사담당자는 그 행사 바로 다음에 이렇게 썼다. “그 협의회 이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여 1991-1995년 사이의 우리의 사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임기 사임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이것으로부터 나는 첫 임기 동안의 목회적 관리와 우리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구체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회는 우리에게 가치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선교회 지도자는 인도로부터 이렇게 써왔다. “우리의 워크샵 이후 몇주간 사이에 벌써 우리는 우리의 탈락을 줄이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샵에 있었던 한 아프리카 지도자의 경우에, 그 조사는 그의 나라의 주요 탈락 원인들을 검토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 원인들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시골, 무슬림 지역에서는 적절한 학교가 부족했다), 타문화 파송 전 훈련의 부족, 그 자신의 땅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강조하는 부족의 가치관에서 유래된 문화적인 문제들(그렇다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선교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봉급조차도 제공하지 못하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 그들의 교회개척가들이 계속 고정적인 목사로 남아있게 만들고 따라서 선교사 명부에서 지워 버리는 교단 본부의 행정적인 지배, 그리고 핍박(소요, 공격, 심지어 순교의 두려움). 이 지도자가 그의 사람들이 이들 여섯가지 문제를 각각 어떻게 언급하려고 했는지를 자세하게 밝힌 것을 보는 것은 격려가 된다.

이 책 전체를 통하여 파송 주체(교회나 선교부)가 탈락과 관계하여 갖는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참고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선교기관을 위한 12가지 기본적인 추천 시리즈를 요약해 보겠다. 이들 중 어떤 것은 비교적 실행

하기가 쉬운 것이나, 다른 것은 많은 용기와 시간적 투자, 그리고 탈락을 파악해내고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원들에게 투자하는 데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1. 당신의 선교부 역사와 유산, 가치들, 행정 체계,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보라. 그리고 당신의 본국 지도자와 현지 지도자들이 당신의 탈락 현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별해내기 위해 그들의 나이를 재검토하라. 이런 맥락에서 브릴리와 맥코간의 글을 읽어 보라.

2. 만약 당신이 탈락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면 적어도 지난 10년간 혹은 어쩌면 지난 선교 행정부가 있었던 기간의 탈락 조사를 진지하게 수행해 보라.

3. 당신 선교부를 위한 기능적인 탈락 추적 체계를 만들라.

4. 탈락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선별 체계와 파송 전 오리엔테이션/훈련을 평가하고 강화하라. 어떤 후보자들에게는 은혜롭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유를 배우라. 혹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여정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심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을 우리 팀에 합류시키는 것은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5. 당신 선교부의 맥락에서 세대적인 도표를 연구하라.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가? 당신은 젊은 지도자들을 미리 개발하기 위해 어떤 여지를 주고 있는가? 당신은 창의적이고, 헌신되었으며, 불안정한 새로운 선교사 세대들을 위해 당신 선교부에 어떤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가?

6. 업무 분담과 선교사들에게 준 임무와 약속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나타내는 당신의 추적 기록부를 평가하라.

7. 검토와 자기 평가, 현실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궤도 수정과 더불어 당신의 선교 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라. 당신은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8. 현지 선교사들이 그들 바로 위에 있는 지도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용납할 만한 체계를 만들라. 너무나 많은 선교부들이 현지의 인력을 대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억지로 내세운다.

9. 이전 선교사들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는 설문조사를 개발하되, 익명성과 그 연구의 심각성을 확신시키라. 다수의 선교부들이 용감하게도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가치가 있는 결과를 보았다.

10. 만약 당신이 국제화된 선교회(다국적 인사들)에 속해 있다면, 당신의 지도력이나 체제가 높은 탈락을 야기하고 있지나 않은지 결정지을 수 있는 민감한 방법을 반드시 제도화하라.

11. 목양 사역자들을 풀어서 사용하라. 그들이 그 사역을 위한 올바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존중을 받는 것을 확신시키라.

12. 당신은 떠나가는 당신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반드시 건강한 퇴임 인터뷰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선교부에 대한 마지막 몇마디

먼저, 우리 모두는 바람직하지 않은 탈락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일은 벌어진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에 대해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탈락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선교회를 거의 떠날 뻔했던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선교부에서 목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몰려 있는 선교 센터나 도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선교회 임원에 의해 아찔해졌다. “우리 선교사들은 목양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되새겨 볼 때 그것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 특정 선교부가 직면하고 있는 150명 선교사들의 목양의 부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

해 주었다.

필요에 따라 탈락을 추적하고자 시도하는 용감한 인사 담당자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높은 지도자는 그 연구를 기각시킨다. 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한 선교부를 안다.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기관의 새로운 지도자는 기꺼이 그 “숨겨진” 연구를 찾아내어 그 정보를 최신화하고, 그후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결정했다. 너무나 많은 경우 탈락은 본부와 현지 지도력 사이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 본부 팀은 창의적이어서 창의적인 새로운 선교사들을 끌어당긴다. 그런데 신입자가 현지로 가서는 오래된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들은 그러한 선교사들의 조기 귀국에 기여한다. 다른 경우에는, 그 반대로 신입자가 창의적인 현지 팀으로 가기 위해 본부 팀에서 인내하면서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하거나 의도적인 탈락에 대한 몇가지 생각을 나눈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죄의식 없이 떠나도록 도와야 하며, 본국에서의 그들의 미래에 대해 다른 사역으로든지 혹은 세속 직장의 어떤 다른 영역으로든지 방향제시를 다시금 해주어야 한다. 선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선교사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체계를 슬쩍 빠져나간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국에서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데, 불행하게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전을 매우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 여기 자비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행동하는 겁 없는 지도자를 찬양하라.

블뤼헤르와 루이스가 시도한 선교기관의 크기와 관계된 탈락 통계에서 나온 관찰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방지가능한 혹은 불가피한 탈락의 모든 경우에, 보다 큰 선교부가 탈락이 적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보다 큰 선교부들은 “인사 이동”의 여지가 보다 많은데, 그것은 만약 선교사 현지에

서 일을 잘 못하면 업무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보다 작은 선교부에서는 이러한 사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큰 선교부가 작은 선교부보다 선교사들을 위한 더 많은 목양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보다 작은 선교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가지 제안은 그들이 다른 작은 선교부와 혹은 선교사들이 생존하고 지속해 나가도록 현지 체제 서비스를 제공할 더 큰 선교부와 함께 목양에 있어서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6. 현지교회

물론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역 초기에는 현지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히 역사하여, 현지교회가 그 자체의 조직과 체계, 문화적인 원동력과 지도력, 교회론과 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선교 인력은 현지교회가 존재하는 곳에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나의 선교 사역 초기에 중앙 아메리카 나라를 방문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대도시 교회의 목사를 방문했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친구 목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내게 말했다. “여기 파송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한 북미인 선교사 부부에게 우리는 파티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혹은 그들이 왜 되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 탈락에 관한 현지인의 관점 속에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가!

현지교회와 외국인 선교사 탈락의 다른 얼굴은 많은 경우에 탈락이란 외국인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계산된 떠남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하기 위해서 왔던 일이

끝났다. 현지교회에 지도력과 책임, 그리고 권위를 넘겨 줄 때가 왔다. 그러므로 것처럼 조심스럽게 계획된 종결은 축하받고, 적절한 감사의 말이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그런 후 현지인에 의해 인도되는 사역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탈락을 불가피한 혹은 예상된 탈락이라고 구분 짓는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재능 많은 베테랑들은 타문화 사역의 새로운 상황에서 섬길 수 있는 최상의 후보들이다. “당신의 일을 끝내라. 그리고는 집으로 가라”는 말에는 일종의 신화가 있다.

외국인 인력에 관계하여 현지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초기에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 나라와 문화권으로 들어간 선교부나 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하는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몇가지 근본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로, 현지교회는 선교사를 위하여 현지의 영적 고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순회 전도자나 교회 개척자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과업을 맡는다. 이것은 그 교회의 목사는 또한 그 선교사의 목사라는 뜻이다. 그것은 또한 그 목사는 선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경우에, 어쩌면 고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그를 징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둘째로, 현지교회는 신임 선교 인력에게 문화와 언어 학습,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한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한 훈련은 외국 선교단체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심지어 더 멀리 있는 파송교회에 맡겨서는 안된다.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가족의 영적 일원이 되며, 현지인과 선교사 자녀들은 다 같이 전세계 교회의 자녀들이 된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기숙사 학교라는 어정쩡한 혼합문화 가운데 자라나서 현지 문화나 현지교회에 한번도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넷째로, 현지교회는 외국인 가정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추가적인 책임을 갖는다. 선교사는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고 지도자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똑같은 그 외국인이 현지 지도자들의 지혜와 경험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끝으로, 선교사들이 무슨 이유로든 현지를 떠날 때 현지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문해 주어야 한다.

7. 목양 책임자

선교 운동에 있어서 이들 특별한 남녀 일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더 많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선교사들의 신체적 건강을 돌본다. 다른 사람들은 회중의 목회자로서 그 일을 위한 특별한 목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선교사들에게 은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이다. 이 책에 국제적인 목양 사역자들의 주소록(제25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훌륭한 기여를 해 준 켈리 오도넬과 다른 목사들에게 감사를 돌린다.

다양한 은사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사람들의 역할을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선교기관에 있어서의 선발과 선별의 첫 단계에서 섬겨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도 어울리는 올바른 종류의 인성 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점점 이런 검사 방법이 더 많이 생겨났다.

둘째, 목양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통스런 정보를 교회와 선교부 지도자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상담자가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끝장”이다. 그것이 현지에서 보낸 특별한 시간이든지 혹은 좀 더 긴 본국에서의 용서와 회복의 사역이든지 간에 목양 책임자의 사역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법을 어겼거나 주요한 성경적 기준이 파손된 명백하고도 중요한 예외들을 직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현지에서의 선교사 재직 기간과 선교에 있어 영향을 준다.

셋째로, 목양 네트워크가 자라서 우리의 전세계 선교사 공동체 속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기쁜 소식이다. 상담과 목양은 민감한 사역이며 타문화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화된 선교기관들은 적절한 목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출신의 남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장래의 연구 전망

탈락 문제를 다루는 장래의 연구에 대한 주제가 다른 장에서도 다루어졌다. 피터 브릴리(제6장)는 7가지 방식의 연구로서 그의 글을 결론 맺었다.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제7장)는 그들의 생각을 더했다. 나는 특별히 가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몇가지 생각들을 강조하기 원한다.

여기, 학생들이 주요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써야 하는 대학원 수준의 신학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또한 한 마디 할 말이 있다. 다음 연구의 선택 목록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학적인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교를 위하여 가시적으로 기여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둘 다 있다.

첫째, 선교사 탈락 방지는 좀 더 넓은 다른 측면에서 설문 내용을 좀 더 좋게 고쳐서 그 연구를 환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

둘째, 선교사 탈락 방지는 5-10년 이내에 14개국에서, 이상적으로는 똑같은 선교부와 나라들에서 다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프로젝트는 처음의 문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탈락 방지를 평가하고, 또한 몇가지 우리의 리서치 질문들을 다시 만들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쯤 되면 다른 배경과 개인적인 필요

를 지닌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자신의 탈락 추적과 방지에 대해 진지한 모든 선교 파송교회와 선교기관은 자기 기관 내부의 연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전체 선교사 탈락 방지 모험의 가장 만족스런 결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탈락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들을 경청하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가운데는 전직 선교사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떠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면밀하게 고안된 연구 도구와 익명성, 그리고 최신으로 온 설문지를 받아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선교부들은 그들의 전직 회원들의 정보를 이 연구를 위해 제공해 줄 것인가? 내가 믿기로 주요 선교부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상처받은 자의 치유를 원할 뿐 아니라 진실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탈락율이 낮은 선교부의 사례연구 프로파일을 개발하면서 선교사들을 효과적인 사역에 계속 남아 있게 하는 주요 행정적인 지도력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사역을 격려하는 요소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바램은 단순히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일도 잘 못하면서 너무나 오래 머무르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과 영적 은사 능력의 요소들 가운데 있는 상관관계이다.

일곱번째, 우리는 좀 더 질적이고 개인적인 연구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문화 사역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여 사역에 성공한 10가정과, 기대보다 일찍 귀국한 10가정을 비교 대조하며 연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굉장한 민감성을 요구할 것이며, 그 결과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조나단 루이스가 내게 보내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맺는다.

연구는 연구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연구원들이, 특히 검사에 대한 몇가지 근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몇몇 흥미로운 관계들을 밝혀내었다. 우리는 그 중 몇가지를 이 장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으로서의 선교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느낀다. 선교지에서의 "실패"는 파송 이전의 기간에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목양에 들어간 높은 수준의 비용(30% 이상)이 탈락 감소에 확실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선교회들이 더 높은 탈락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문제가 일어날 때 허술한 선별이나 파송 전 훈련 과정이 목양을 더욱 필수적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짜 선교지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기에 목양을 한다 해도 그들이 머물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종류의 가설은 비록 그것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시험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목양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여전히 높은 탈락율 보이는 선교회가 다음 사실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 선별과정과 다른 파송 전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수정하게 될 때 이 정보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즉, 그들이 올바른 종류의 선별과 올바른 종류의 훈련에 더 투자하는 것이 어찌면 그들의 "목양"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그들의 탈락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류의 내부 "연구"가 낮은 탈락율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침내, 이 책을 끝내면서

바로 오늘 나는 한 용감한 선교사 부부가 남아시아

에서 그들이 최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역 기간을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솔직한 언어는 신선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정말로 울었다. 그들이 선교지를 떠나기로 선택했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갔으며, 나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들을 존경한다. 그 과정 중에, 남편은 자신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일의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그가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발견했고, 외국 여자가 많은 비인간적인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무슬림 문화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더욱 민감한 남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또한 깨달았다.

이 책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사 탈락의 원인과 치료책을 탐구한 것이다. 탈락이라는 주제는 바른 방식으로 바른 도구로 다루어져야 하는 거대하고 위험한 병산이다. 우리는 탈락의 치료면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싶다.

타문화 사역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것(우리 모두는 생존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과 번창하는 것(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나는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올바른 이유로 예수를 왕으로서 땅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기 효과적인 장기 사역을 뒷받침해 줄 여덟 가지 원리들이 있다.

1. 영성. 우리는 언제나 다시 깊은 영성과 타문화 사역의 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으로 다듬어진, 예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요소에 대해 결코 "사탕발림"을 하지 말라. 소명의 부족과 부적절한 헌신은 신생 파송국가의 우리 동료들에 의해 높은 탈락 원인으로 자리 매김이 된 것을 다시금 주목하라. 그러나 영성의 부족은 그곳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운동에 있어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가짜 영성의 가면을 또한 벗어 버려야 하는데, 성취 위주의 행동, “숫자적인 기대치,” 그리고 죄의식이 우리들의 훌륭한 선교 인력인 형제 자매들을 조종하고 있다.

2. **관계상의 기술.**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한 적절한 관계상의 기술들을 강조할(파송 전의 실제적인 사역에서는 물론 어떤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필요가 있다. 상하 질서 구조 속의 단일문화적인 사람은 선교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얼마나 많은 선교 팀들이 신학적인 이유로 깨져 버렸는가? 물론 약간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팀들이 대인관계상의 갈등 때문에瓦解되었다. 우리는 지도자의 능력과 추종자의 태도를 지닌 남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교지로 가지 말라고 조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실해야만 한다.

3. **사역 기술.** 우리는 사역을 위한 올바른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이 드러나고 연마되는 곳으로 지역교회 상황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기술들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선교 인력 가운데서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과 사역의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탈락의 방지책으로 진지하고, 광범위하며, 집중적이고, 평가적인 파송 전 사역을 대치할 만한 것은 결코 없다.

4. **훈련.**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올바른 종류의 지식들을 격려해야 한다. 정규적인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공부의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팀에서 일할 사람을 보낸다면, 그 팀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공식적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팀 구성원들은 선교를 위한 특정 훈련이 제공되는 단기 과정들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5. **교회 참여.** 전체 선교 사업에 있어 교회의 전략적이고 점점 더 커져가는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회는 그들의 선교 세력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하며, 그들의 믿는 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장래 선교사 후보들을 인식해야만 하며, 그들을 진지한 사역 가운데 평가해야 하며, 이제 그들이 다른 나라와 문화권으로 나아가 사역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들을 알아야 하고, 능력으로 증보하고, 파송하며, 그들의 확대 인력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네 선교사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탈락 연구에서 선교사와의 지속적인 서신 왕래(지금은 점점 더 전자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심지어 본국으로부터 누가 방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기관과 함께 세심한 선교사 후보 선별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동역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6. **현지에서의 돌봄.** 적절한 현지체제의 목양을 대치할 만한 것은 없다. 나는 한가정을 고립된 아시아 지역에서 섬기도록 배정하면서 가장 가까운 팀 지도자를 런던에 주재시킨 한 건실한 선교기관의 사례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회와 선교기관은 사역 현장에서의 적절한 목양과 전략화, 그리고 감독에 관하여 동역해야 한다.

7. **평가.** 우리는 기간별 자가 진단서와 사역 기간 중 선교사 인력에 관하여 지도자가 안내자가 되어 이끄는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기 평가를 위한 건전한 도구가 되며, 또한 지도자는 그 사역자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이 평가는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공식적/비공식적 훈련의 근거가 된다.

8. **종결.** 선교사 사역을 종결지을 때가 오면, 선교기관과 파송교회는 선교사 가정을 올바르게 대우해야 한다. 당신은 이들 전직 사역자들이 당신과 더불어 하던 활발한 역할을 떠난 이후 오랫동안 그들에 대해 지속

적인 책임이 있다. 의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는 건강한 퇴임 인터뷰를 제공하라. 성령께서 타문화 사역으로부터 다른 사역 혹은 직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을 축복으로 보내주라.

그렇다, “일은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탈락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탈락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개인적인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아이오나의 바람 세찬 섬에 서 있었던 1996년 3월을 기억한다.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고, 결국은 그들의 선교사를 우크라이나와 비잔틴 제국으로까지 멀리 보내고자 했던 그들 독특한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간증을 우리가 회고해 보는 동안 켈트족과 선교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켈틱 선교사들이 그들의 성령에 대한 상징인 야생 거위의 깃발 아래서 가졌던 페레그리나티오(pergrinatio, 펠그림,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험하는 방향벽)의 비전을 다시 기억한다. 나는 그들의 세가지 색깔의 헌신을 응시한다. 빨간색 헌신은 핍박과 피흘림,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상징하고, 초록색 헌신은 자기 부인과 개인적인 성결에 이르게 하는 참회의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흰색 헌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과 종족을 떠나서, 어쩌면 결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주기적으로 나는 요한계시록 7:9-10의 영광의 한 부분을 흘깃 바라보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놀라운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는 아직 거기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날에 더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역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의 선교사들이 신실하게 남아있을 것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전세계적인 타문화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준비시키고, 파송하고, 후원할 것이다.



윌리엄 테일러 (William D. Taylor)는 1986년 이래로 WEF 선교분과 위원회의 총무직을 맡고 있다. 부모가 선교사인 그는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나 남미에서 30년간 살았는데, 17년간은 과테말라에 있는 Seminario Teológico Centroamericano란 신학교에

서 교수직을 맡아 직업적인 선교사로서 살았다. 텍사스주 본토 박이인 이본느(Yvonne)와 결혼했으며 세 자녀는 모두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X세대이다. 그는 오스틴(Austin)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남미 연구를 통해 철학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그는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Paternoster/Baker, 1991)이란 책과 *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 (William Carey Library, 1994)란 책을 편집했으며, *Crisis and Hope in Latin America* (William Carey Library, 1996)란 책을 Emilio Antonio Nunez와 공동 집필하였다. 그의 바람은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며 천국을 예비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제 6 부

부 록

설문조사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이유

들어가는 말

금년 초, 선교사 증도탈락 원인 규명에 사용될 설문을 다듬기 위해 10개국에서 온 선교 지도자들이 만났다. 미국에서는 WEF 선교분과 위원회, 선교사 인턴쉽(Missionary Internship), 그리고 선교 훈련과 자료 센터(Mission Training and Resource Center)가 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간행된 대부분의 자료를 조사했다. 만약 미간행되었거나 응답자들에 의해 혹은 선교회 연구원들에 의해 완성된 각 단체 자체 내의 연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도록 이 지면을 빌어 요청하는 바이다.

이 조사는 방지가능한 선교사 손실의 원인을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 도구와 과정을 다양한 국면을 가진 노력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다음 해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 것인데, 거기서 이 조사의 결과를 나눌 것이며 응답자들이 불필요한 탈락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매년 깊이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적인 도구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선교회나 또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 조사 결과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조사의 결과들이 파송 기관이나 선교 사역 어느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D. 테일러, WEF
512/467-8431(미국)
필립 엘킨스, MTRC
818/797-7903(미국)
이태웅 목사, GMTC
02/649-3197(한국)

1. 가장 중요한 원인

유의사항

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중단하는가에 관한 26가지 원인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지 가능한 원인과 불가피한 원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귀 선교회를 떠났던 선교사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이 26가지 원인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 원인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의 순서대로 1부터 7까지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불가피한 원인

- ___ (1) **정상적인 은퇴.** 선교사역을 정상적으로 끝낸 뒤에 따르는 은퇴.
- ___ (2) **정치적 소요.** 전쟁, 정부의 핍박, 정정(政情) 불안, 기아(飢餓) 등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사역을 떠나는 것.
- ___ (3) **사역 중의 죽음.** 사역 중인 선교사,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혹은 실종.
- ___ (4) **외부인과의 결혼.** 선교회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
- ___ (5) **업무의 변화.** 임무의 완수나 또는 새로운 직책으로의 이동.

결혼/가족으로 인한 원인

- ___ (6) **자녀(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자녀들의 부적응, 교육적 필요, 건강 또는 행동의 문제.
- ___ (7) **노부모.** 나이든 부모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
- ___ (8) **결혼/가족 갈등.** 결혼이나 가족 간에 발생한 갈등, 가까운 가족 일원의 죽음.

선교회로 인한 원인

- ___ (9) **본부 후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기도 또는 다른 후원의 불충분, 높은 인플레이션.
- ___ (10) **파송단체와의 불일치.** 정책, 권위, 기타 문제에 대한 파송기관과의 불협화음.
- ___ (11) **신학적 이유.** 은사주의, 종말론 또는 다른 교리들에 대한 파송기관과의 불일치.

개인적 원인

- ___ (12) **미성숙한 영적 생활.** 채워지지 않은 영적 필요, 영적 미성숙 등과 같은 영적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 ___ (13) **건강 문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 ___ (14) **불충분한 헌신.** 장기 선교 사역과 관련된 대가와 헌신에 대한 이해의 결여.
- ___ (15) **개인적 염려.**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를 다루

는 법, 분노, 비현실적인 기대, 독신, 외로움 등에 관련된 문제들.

- ___ (16) **소명의 결여.**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결여 혹은 상실.
- ___ (17) **비도덕적인 삶의 형태.** 비도덕적 행동, 술 또는 약물 중독.

팀과 관련된 원인

- ___ (18)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 현지체제 지도자들이나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 ___ (19) **현지인 지도자들과의 문제.** 현지 교회 지도자들 또는 다른 현지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문화적 원인

- ___ (20) **문화 부적응.** 선교지의 문화, 관습, 전통 그리고 삶의 여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움.
- ___ (21) **언어 장애.** 선교지의 언어를 적절하게 배우지 못함.

업무와 관련된 원인

- ___ (22) **해고.** 의무와 책임들을 만족할 만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해고.
- ___ (23) **업무에 대한 만족의 결여.** 과중한 업무 부담, 적절한 기술의 부족, 업무 유형에 적합치 않음, 회심자를 얻는데 실패함 등과 같은 것에 기인한 업무에 대한 불만족.
- ___ (24) **부적절한 감독.** 목양, 팀 체제 정비, 그리고 다른 후원을 포함한 업무에 대한 파송기관의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또는 권위적인 감독.
- ___ (25) **부적합한 훈련.** 선교사역을 위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훈련과 준비.

기타 원인

- ___ (26) **기타 원인.**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원인들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구체적으로).

2. 선교사 손실(1부)

유의사항

1992년, 1993년, 그리고 1994년에 귀 선교회를 떠난 전체 선교사들(어떤 원인으로든)의 숫자를 표시해 주시되, 부부는 한 단위로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그 해 떠난 전체 선교사들의 숫자.
- (2) 독신 여자 선교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 (3) 독신 남자 선교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 (4) 부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2)	(3)	(4)
1992	_____	_____	_____	_____
1993	_____	_____	_____	_____
1994	_____	_____	_____	_____
1992-94 전체	_____	_____	_____	_____

3. 선교사 손실(2부)

유의사항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떠난 전체 선교사들 숫자(위의 질문 2의 (1)) 중에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 (1) 불가피한 원인 _____
 - (2) 결혼/가족으로 인한 원인 _____
 - (3) 선교회(단체)로 인한 원인 _____
 - (4) 개인적 원인 _____
 - (5) 팀과 관련된 원인 _____
 - (6) 문화적 원인 _____
 - (7) 업무와 관련된 원인 _____
 - (8) 기타 원인 _____
- 전체[위의 질문 2의 (1)와 같음] _____

선교단체에 관한 정보

아래의 질문들은 귀 선교단체/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각각의 선교단체가 드러나는 식의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발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선교사 숫자

유의사항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장기 선교사”(career missionary)는 장기간 선교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를 내립니다. 귀 선교 기관은 얼마나 많은 장기 선교사들(부부는 한 단위로 셈)을 섬기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1 - 10명
- _____ (2) 11 - 25명
- _____ (3) 26 - 50명
- _____ (4) 51 - 100명
- _____ (5) 101 - 200명
- _____ (6) 201 - 500명
- _____ (7) 500명 이상
- _____ (8) 없음

5. 기관의 역사

유의사항

귀 기관은 몇 년 동안이나 선교사(장기 선교사와 다른 형태를 모두 포함해서)를 파송해 왔습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1년 미만
- _____ (2) 1 - 2년
- _____ (3) 3 - 10년

- ___ (4) 11 - 25년
 ___ (5) 26 - 50년
 ___ (6) 51 - 100년
 ___ (7) 100년 이상

6. 기관의 초점

유의사항

귀 기관은 아래 어떤 범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까? 만일 귀 기관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을 1로 하여 1부터 4까지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 ___ (1) 자국어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자국 경계 내의 사람들에게.
 ___ (2) 외국에 살지만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자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___ (3) 자국 경계 내에 살지만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 그룹들에게.
 ___ (4) 외국에 사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7. 사역의 유형

유의사항

여러분의 선교사들은 아래 어느 유형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한가지 유형 이상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1부터 6까지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 1은 가장 많은 선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 유형이고 6은 가장 적은 수의 선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의 유형입니다.

- ___ (1) 행정, 목회, 가르침, 신학 훈련, 그리고 다른 지원사역을 통해 지역 교회를 돕는 사역.
 ___ (2) 행정, 목회, 가르침, 신학 훈련 그리고 다른 지원사역을 통해 현지 교단 또는 전체교회(national church)를 돕는 사역.
 ___ (3) 복음주의적 교회가 세워져있는 지역에서 전

도와 교회개척에 참여하는 사역.

- ___ (4) 복음이 적게 증거되거나 전혀 증거되지 않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하는 개척 사역.
 ___ (5) 성경번역, 비행사역, 문서사역, 방송사역 등과 같은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한 지원사역.
 ___ (6) 기아구제, 병원(의료)사역 등과 같은 구제와 개발 또는 기관에 참여하는 사역.

8. 선교사 후원

유의사항

귀 파송기관은 선교사들을 위해 아래의 사항 중 어떤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___ (1) 지정된 현지체제 지도자를 통한 감독.
 ___ (2) 지정된 현지체제 지도자 외에 누군가에 의한 목양.
 ___ (3) 상세한 업무 설명.
 ___ (4) 계획된 현장 실습훈련.
 ___ (5) 연간 휴가에 대한 지원.
 ___ (6) 파송기관으로부터 누군가 최소한 일년에 한번 방문.
 ___ (7)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재정, 또는 교사들의 지원.
 ___ (8) 지원적임 팀 구조.
 ___ (9) 본부 사무실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전화나 편지를 하는 것.
 ___ (10) 선교사들을 위한 지역별 수련회.
 ___ (11) 다른 유형의 후원(구체적으로).

9. 선교사 개인을 위한 자원의 사용

유의사항

귀 파송기관 자원의 몇 퍼센트를 현재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목양과 감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시

간, 재정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각 세로줄에 시간과 재정 한가지씩만 표기해 주십시오.

	시간	재정
(1) 1% 미만	_____	_____
(2) 1% - 5%	_____	_____
(3) 6% - 10%	_____	_____
(4) 11% - 20%	_____	_____
(5) 21% - 30%	_____	_____
(6) 30% 이상	_____	_____

10. 훈련

유의사항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훈련 유형 중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선교학 학위 과정.
- _____ (2) 학위 과정 외에 선교학에 관한 공식 과정.
- _____ (3)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선교학 과정
- _____ (4) 신학 과정 또는 다른 직업 훈련 과정
- _____ (5) 비공식적 선교사 훈련 과정.
- _____ (6) 타문화권 단기 경험.
- _____ (7) 타문화 오리엔테이션
- _____ (8)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음.
- _____ (9) 다른 기술(구체적으로)

11. 평가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 중 귀 기관이 선교사역을 위한 장기선 교사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귀 선교기관의 교리적 진술에 대한 동의.
- _____ (2) 선교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진술.

- _____ (3) 후보자의 교회 등으로부터 개인 성품에 대한 참고인 진술.
- _____ (4) 이전의 선교와 비슷한 유형의 사역 경험.
- _____ (5) 이전의 교회 사역 경험.
- _____ (6) 건강에 대한 평가.
- _____ (7) 의사전달 및 관계의 기술에 관한 평가.
- _____ (8) 지도력과 목회 능력에 대한 평가.
- _____ (9) 후보자의 결혼 또는 독신 상태에 관한 평가.
- _____ (10) 나이 또는 자녀 숫자 제한, 또는 다른 가족에 관한 사항.
- _____ (11) 심리 또는 성격 검사.
- _____ (12) 재정후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
- _____ (13) 안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 _____ (14) 다른 조건(구체적으로).

12. 다른 요소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은 방지가능한 원인들로 인하여 손실되는 선교사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들의 목록입니다. 첫번째 세로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교사 탈락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3곳에 표시해 주시고, 두번째 세로줄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되는 3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 가장 중요한 것

X =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 | | | |
|-------|-------|-----------------------------------|
| O | X | |
| _____ | _____ |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원. |
| _____ | _____ | (2) 본국의 친구, 교회, 기도 후원자들과의 정규적 접촉. |
| _____ | _____ | (3) 선교에 대한 분명한 소명. |

- ___ ___ (4) 다른 선교사나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 ___ ___ (5) 정규적인 감독, 목양, 그리고 다른 후원.
- ___ ___ (6)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언어 습득 능력.
- ___ ___ (7)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처하는 능력.
- ___ ___ (8) 행정가들 및 파송기관과의 좋은 관계.
- ___ ___ (9) 본국으로부터의 정규적인 재정후원.
- ___ ___ (10) 적절하고 정규적인 훈련의 제공.
- ___ ___ (11)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도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
- ___ ___ (12) 다른 요소(구체적으로)

13. 응답자의 역할

유의사항

이 조사의 응답자로서 귀하는 귀 기관, 선교단체, 선교회, 또는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 ___ 선교 책임자
- ___ 선교 행정가
- ___ 파송 교회의 목회자
- ___ 선교본부 요원
- ___ 전직 선교사
- ___ 기타 _____

익명성 보장

우리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을 확인하고 다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조사에 응답해주신 귀 기관의 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와 신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기관/교회의 이름:

주소:

아래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Phillip Elkins
Mission Training & Resource Center
P.O. BOX 41155
Pasadena, CA 91114

또는
이태웅 목사
한국선교훈련원
서울 양천구 목2동 231-188
158-052

선교사역을 떠나는 이유는? 한국 선교단체를 위한 부록

유의사항

앞에 있는 세계적으로 실시된 조사항목 외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나 지역에 특수하다고 간주되는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 부록을 추가시켰습니다.

한국의 조사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우리나라의 선교사 탈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추가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 이유

지난 10년 동안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행동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선교사를 모집하고 과거 수준의 숫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기관의 능력에 이러한 변화들이 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1. 사역

10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한 정도

더 많음 똑같음 더 적음

- (1) 사역하는 나라. _____
- (2) 사역하는 종족 그룹. _____
- (3) 함께 사역하는 현지교회. _____
- (4) 만일 더 적은 숫자의 현지 교회와 사역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아래 중 무엇입니까?
 _____ 사역을 현지 교회에 넘겨 줌.
 _____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음.
 _____ 그 지역에서 계속 선교하기가 어려움.
 _____ 기타 _____

2. 조직

지난 10년 안에 여러분의 기관은,
예 아니오

- _____ (1) 국내 다른 기관(들)과 제휴하였다.
- _____ (2) 외국 기관(들)과 제휴하였다.
- _____ (3) 자비량 또는 봉사 담당 부서를 발전시켰다.
- _____ (4) 만일 (3)항목에 예라고 답변했다면, 새로운 부서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인원

지난 10년 동안 아래의 내용들은 귀 기관에 있어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매우중요 중요 변화없음

- (1) 단기 사역자(0-2년)의 증가. _____
- (2) 조기 은퇴(45세쯤) _____
 요청의 증가 _____
- (3) 장기 선교사의 감소. _____
- (4) “일반 선교사”보다 전문인 _____
 선교사가 많아지는 것과 _____
 같은 역할의 변화. _____

4. 재정

지난 10년 동안에 아래의 사항들이 여러분 기관의 선교사 파송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매우중요 중요 변화없음

- (1) 선교사 파송 비용의 증가. _____
- (2) 예전보다 적어진 현금과 _____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의 _____
 태도의 변화. _____

선교단체를 위한 탈락 추적 지침

필립 엘킨스 / 조나단 루이스

아래 추적 지침(Tracking Guide)은 귀 기관이 내부적으로 탈락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잠정적 양식으로서 필요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다. 추적 지침은 두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첫번째는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추적 지침 사용 안내

아마도 추적 지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교사들과 선교 행정가들로 하여금 선발, 준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위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요소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추적 지침은 선교를 위한 인력을 파송하고 유지하는 전과정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이것은 선교회들과 문제 영역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정신차리게 하는데 아주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며 그들에게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 과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때, 추적 지침은 불필요한 탈락을 방지하는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둘째로, 모아진 정보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한다. 행정적 결정이란 단지 그것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만큼 내려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기록은 결정적인 정보의 한 중요한 출처이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떠나는 중대한 원인들을 단순히 대조해보는 것만을 통해서도, 교회와 선교회 행정가들은 가장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료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탈락 원인과 교회 또는 선교회가 행하고 있거나 혹은 행하지 않고 있는 선발, 훈련, 그리고 현지 후원의 영역들과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석은 탈락 방지를 목표로 한 특별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에워싸고 있는 시간과 자원의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탈락의 근원적 이유들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청지기로서 전체적인 우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추적 지침은 일종의 조사 형식의 양태를 취한다. 이것 자체가 스스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만일 책임을 맡은 면담자에 의해 관리가 된다면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정보를 모으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이미 작성된 양식들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할 때, 그 자료들은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나 스프레드 시트에 옮겨져야 하는데, 그곳에서 자료들을 쉽사리 대조할 수 있게 되고 통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보가 필요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손으로 작성하는 체계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제1부: 선교지를 향해 떠날 때

이 질문들은 선교사가 초기에 파송될 때부터 작성되어야 하며, 연속해서 본국에 돌아와 다시 떠날 때마다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추적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선교현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 대해 각각 작성된 질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일 선교 단체로부터 지정된 면담자가 이 정보를 모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이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인구 통계적 정보

부부의 경우에는 각 사람에게 따로 질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름 _____
 생일 _____ 나이 _____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_____

배우자 유무

- ___ 독신 여자
- ___ 독신 남자
- ___ 결혼한 여자
- ___ 결혼한 남자

만일 결혼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현 배우자와 살아왔는가? _____

이 사람은 결혼 가정(이혼 혹은 별거) 출신인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건강

(1) 해당 선교사에게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문제들을 기록하라.

(2) 이 사람은 심리 검사를 받았는가? 만일 받았다면, 결과는?

- ___ 매우 좋음 ___ 보통
- ___ 좋음 ___ 좋지 않음

3. 소명

이 사람은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선교지로 나가는 결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소대로 1부터 4까지 순위를 표시하라).

- ___ (1) 가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에 대한 응답.
- ___ (2) 미전도 족속의 필요를 알고 응답.
- ___ (3) 소명은 분명치 않지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
- ___ (4) 일차적으로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소명을 느낄.
- ___ (5) 교사/목사의 영향
- ___ (6) 수련회/캠프의 영향
- ___ (7) 가족들의 영향

4. 교육과 훈련

- (1) 최종학교 졸업 연도 또는 취득학위

- (2) 정규 성경교육 또는 신학훈련을 받았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수학 연한 _____
취득 학위 _____
- (3) 전문적으로 선교사만을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훈련받은 기간 _____
귀 단체가 그 훈련을 실시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다른 단체라면(이름 또는 설명) _____

- (3) 선교단체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참석한 기간 _____
- (4) 최근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프로그램 내용 _____

5. 선교지 사역

- (1) 사역하고 있는 나라 _____
사역 종족(만일 지적할 수 있다면)

- (2) 사역지는?
_____ 자국 내
_____ 외국
_____ 같거나 비슷한 문화권
_____ 완전히 타문화권

- (3)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렇다 _____ 아니다 _____
협력하고 있다면 어떤 단체와? _____
- (4) 현재 임기는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가?

- (5) 이제까지 선교사로 사역한 총 햇수 _____

선교지 사역의 주요내용

아래 목록에 나타나 있는 선교사의 주요 책임들을 점검하라. 만일 한가지 이상이라면, 각 활동에 대한 시간 배당을 퍼센트로 표기하라. (전체 퍼센트를 합산하면 100%가 되어야 한다.)

- _____ 교회 개척
- _____ 현지 전체 교회(national church)를 위한 사역
- _____ 전도
- _____ 목회 사역
- _____ 신학 교육
- _____ 행정
- _____ 선교 현지체제 책임
- _____ 일반 교육
- _____ 직업 교육
- _____ 기관 행정
- _____ 선교사 자녀 교육
- _____ 선교사 자녀 돌보는 일
- _____ 청소년 사역
- _____ 어린이 사역
- _____ 성경번역 사역
- _____ 문서 사역
- _____ 라디오/TV 사역
- _____ 정비 사역
- _____ 비서/사서/점원
- _____ 개발 사역
- _____ 난민 사역
- _____ 가난한 계층을 위한 사회 사업
- _____ 의료 사역

- ___ 자비랑 사역
___ 기타(구체적으로)
-

6. 선발

해당 선교사를 선발하는데 사용했던 모든 서류를 점검하라.

- ___ (1) 교리적 진술에 대한 동의.
___ (2) 심리 또는 성격 검사.
___ (3) 선교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진술서.
___ (4) 몇 장의 긍정적인 개인 참고인 진술서
___ (5) 인정된 사역 경험
___ (6) 단기 선교 경험
___ (7) 인수(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___ (8) 허입에 있어 자녀 숫자 제한 또는 다른 가족 여건
___ (9) 결혼 또는 독신 생활에 대한 평가
___ (10) 관계맺는 기술에 대한 평가
___ (11) 미리 작성된 재정 후원 액수
___ (12) 건강에 대한 평가
___ (13) 기타(구체적으로)
-
- ___ (4) 연간 휴가(휴일)를 위해 배당된 시간.
___ (5) 최소한 매년 본부로부터의 방문.
___ (6) 최소한 매월 본부로부터의 전화.
___ (7) 최소한 매월 본부로부터의 개인서신, 팩스, 또는 전자우편.
___ (8) 자녀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학교, 재정, 교사 등).
___ (9) 영적, 심리적 후원을 제공하는 팀 구조.
___ (10) 현지체제 지도자를 통한 직접적인 감독.
___ (11) 기타 선교회가 제공하는 후원의 내용 중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
-

7. 후원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있는 동안, 아래의 사항들은 파송 교회나 선교 단체가 제공하는 후원의 내용들이다. 해당 선교사는 이렇게 제공되는 후원의 내용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을 순서대로 1부터 4까지 표시해야 한다.

- ___ (1) 목양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선교회 밖의 인사를 지정하는 것.
___ (2) 구체적으로 묘사된 업무 분담.
___ (3) 구체적 사역을 위해 계획된 현장 실습훈련.

제2부: 선교지를 떠날 때

한 선교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계획 없이 선교지를 떠날 때, 그 개인은 물론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은 탈락의 원인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아래의 양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록으로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WEF 선교분과 위원회가 미래에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실시하게 될 이러한 탈락에 관한 연구를 돕는 자료가 될 것이다.

첫째, 이러한 특정 경우에 적용되는 탈락의 원인들을 밝히라. 그리고 난 후, 그것들을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각 항목마다 가치 퍼센트를 할당하라. 이것만이 선교지를 떠나게 하는 전체 결정 안에서 각 원인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은퇴나 죽음과 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100%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선교현지를 떠나는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상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선교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은 또한 떠나는 선교사와의 보다 깊은 면담을 갖도록 돕는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된 원인

- ___ (1) 정상적인 은퇴. 선교사역의 정상적인 완수에 따른 은퇴.
- ___ (2) 계약의 만료. 특별한 과업 또는 기한을 정한 계약이 만료됨.

정치적 또는 재난에 의한 원인

- ___ (3) 정치적 소요로 인한 이동. 전쟁, 정부의 핍박, 전염병, 기아, 정정 불안, 비자의 취소나 연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인한 그 나라로부터의 어쩔 수 없는 이동.
- ___ (4) 사역 중 죽음. 사역 중인 선교사의 죽음 또는 실종.

결혼/가족으로 인한 원인

- ___ (5) 자녀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자녀들의 부적응, 교육적 필요, 건강 또는 행동의 문제.
- ___ (6) 노부모 나이든 부모를 돌봐야 할 필요.
- ___ (7) 결혼/가족 갈등. 결혼 또는 가족 갈등, 가까운 가족 일원의 죽음.
- ___ (8) 외부인과의 결혼. 선교회 외의 사람과 결혼.

선교회로 인한 원인

- ___ (9) 본부 후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기도 그리고/또는 다른 후원의 불충분.
- ___ (10) 파송단체와의 불일치. 정책, 권위, 기타 문제에 대한 파송 기관과의 불협화음.
- ___ (11) 신학적 이유. 은사주의, 교회의 관행 또는 교리적 쟁점들에 대한 파송기관과의 불일치.

개인적 원인

- ___ (12) 미성숙한 영적 생활. 채워지지 않은 영적 필요, 영적 성숙의 부족 등과 같은 영적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 ___ (13) 건강 문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

된 문제들.

- ___ (14) 불충분한 헌신. 장기 선교 사역과 관련된 대가와 헌신에 대한 이해의 결여.
- ___ (15) 개인적 염려.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분노, 비현실적인 기대, 독신, 외로움 등에 관련된 문제들.
- ___ (16) 소명의 결여. 선교사역에로의 진정한 부르심의 결여 혹은 상실.
- ___ (17) 비도덕적인 삶의 형태. 비도덕적 행동, 술 또는 약물 중독.

팀과 관련된 원인

- ___ (18)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 현지체제 지도자들이나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 ___ (19) 현지인 지도자들과의 문제. 현지 교회 지도자들 또는 다른 현지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문화적 원인

- ___ (20) 문화 부적응. 선교지의 문화, 관습, 전통 그리고 삶의 여건에 대해 적응하기가 어려움.
- ___ (21) 언어 장애. 선교지의 언어를 적절하게 배우지 못함.

업무와 관련된 원인

- ___ (22) 해고 의무와 책임들을 만족할 만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해고.
- ___ (23) 업무에 대한 만족의 결여. 과중한 업무 부담, 적절한 기술의 부족, 업무 유형에 적합치 않음, 회심자를 얻는데 실패함 등과 같은 것에 기인한 업무에 대한 불만족.
- ___ (24) 부적절한 감독. 목양, 팀 체제 정비, 그리고 다른 후원을 포함한 업무에 대한 파송기관의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또는 권위적인 감독.
- ___ (25) 부적합한 훈련. 선교사역을 위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훈련과 준비.

기타 원인

____ (26) 기타 원인.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원인들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구체적으로).

면담

제2부의 질문서는 가능하다면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들과 깊은 면담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떠나는 주요 원인이 방지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것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면담은 객관적인 추적 지침이 간과할 수 있는 전체 탈락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노련한 면담자는 쟁점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 선교사들이 일찍 선교지를 떠나는가에는 언제나 적어도 양면이 있다. 면담은 보다 균형 있는 그림을 얻도록 도와 줄 것이며 가치 있는 통찰력들을 제공할 것이다.

선교 행정가들은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그들 마음속

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던 원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담은 방어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는 반대로, 신뢰와 공감 그리고 지원의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들어주는 행위가 이러한 면담의 가장 정화(淨化)적 요소이고 선교사에게는 치료적인 효과를 준다.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귀국 후 면담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도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해방과 치유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단체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교제로부터 뒤로 물러서 있다. 행정가들이 겸손하게 그들의 선교사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비판으로부터 배우고자 할 때에, 선교사들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며 선교회는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옮긴이 소개

백인숙

한국 외국어대학교 졸업, 극동방송 전도부 근무, OM 단기선교(1981-83), 전 조이선교회 간사, 한국선교훈련원(GMTC) 교수, 현 GMF 선교사자녀 사역부(MK NEST) 책임자.

김동화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텍사스(알링턴)대 대학원 언어학과 졸업, 전 동아대, 연세대 교수, 현 성경번역선교회(GBT) 공동 대표.

정민영

고려대학교 건축과 졸업, 합동신학원 졸업, 미국 미시간주 칼빈신학교 졸업(M.Th), GBT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정글 훈련 수료,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지역 사역, 현 GBT 공동 대표.

이현모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침례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전 조이선교회 간사, South 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선교학, Ph. D.), 현 침례교 신학대학원 교수.

변진석

한국 외국어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GMTC 졸업, 현 GMF 소속 에콰도르 선교사.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 - 선교사 허입, 훈련, 후원과 중도탈락의 상관관계

초판발행 : 1998년 7월 30일

편 집 인 : 윌리엄 D. 테일러

옮긴이 : 백인숙 김동화 정민영 이현모 변진석

발행처 : 조이선교회출판부 (등록 : 1980.3.8. 제5-75)

주소 :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전화 : (출판부)925-0451, 929-3655 (본부)929-3652~4 (제자훈련부)921-3427 (청소년센터)921-2781

팩스 : 923-3016

은행지로 : 7512711

인쇄처 : 시난기획

판권소유 : © 조이선교회출판부

한권값 : 13,000원

ISBN : 89-421-0113-5 03230